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나무소녀

(Tree Girl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강 은 주

2014년 7월

나무소녀

(Tree Girl · 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강 은 주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7월

강은주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4년 7월

Tree Girl

Eun-Ju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4.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Tree Girl* by T.A. Barron.

Tree Girl, Rowanna is a real tree girl as she is a tree spirit. But, she didn't know who she was, and consistently wondered about where she came from and what had happened to her mother who was said to leave Anna under the High Willow. Therefore, Anna started her way to find her own place where she came from with her friends, little sparrow Eagle and a sand-colored bear Sash. However, Master Mellwyn had warned so many times that she must not go into the forest and even look on the eyes of the trees since there were tree ghouls and deaths. But, she couldn't help going to the trees and meeting Sash and wholly new world in the deep forest. At last, she came to know she was a tree spirit and even a daughter of the High Willow! Also she came to understand why the High Willow had seemed to wave to her and why the forest was scary but sometimes felt warm. She will not feel lonely any longer because she can be with her mother who would wait for her wherever she goes.

T.A. BARRON is the award-winning author of fantasy novels, most notably the Merlin saga. He serves on a variety of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boards, including the Nature Conservancy and the Land and Water Fund of the Rockies, and is the founder of a national award for heroic children. Following a life-changing decision to leave a successful business career to write full-time in 1990, Barron has written seventeen books, but is happiest when on the mountain trails with his wife, Currie, and their five children.

『나무소녀』에 대한 찬사

“나무소녀의 이면에는 우리 지구와 거기 살고 있는 어린이들과 숲의 신성함에 대한 작가의 뻗속 깊은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T.A. 배런과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작가 로즈마리 웰스

“나무소녀는 활기차고, 마법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숲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수상 작가 바바라 헬렌 버거

“독자들은 자립, 저항, 자기 이해라는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될 것이다.”

-북리스트

“나무소녀에서 T.A. 배런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최고의 걸작들에 담겨있는 신랄함과 서정성을 가지고 판타지를 만들어냈어요.”

-바바라 키에퍼, 『제6, 7차 초등아동문학』의 저자

“저는 가족에게 나무소녀를 소리 내어 읽어줘요. 막내는 초등학교2학년이에요. 가족들은 냇을 읽고 이야기를 경청하죠. 아이들이 유일하게 입을 열 때는 내가 물을 마시려고 책읽기를 멈출 때예요. ‘그 다음은요!’ 하고 외친답니다.”

-BookReview.com

1장

“엄마가 나랑 춤을 봤어, 정말이야, 춤을 봤다니까.” 안나는 녹갈색 눈을 찡그려 그녀 옆 나뭇가지에 앉은 다람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동안이고 춤을 봤어. 밤까지 말이야, 정말이야.”

하지만 다람쥐는 전나무열매를 씹느라고 바빠서 그녀의 말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계속 우적우적 씹어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다람쥐의 꼬리는 털로 덮인 햇바닥처럼 공중에서 날름거렸다.

안나는 그녀가 올드마스터벌이라 부르는 그 커다란 전나무의 몸통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가지를 한번 튕겼다. 그 가지는 삐걱 소리를 내며 안나와 다람쥐를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녀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련히 기억나는 춤에 맞춰 흔들거리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가 먼 옛날을 떠올린다.

그리고 엄마를 떠올린다.

“그리고 엄마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 안나는 꿈결처럼 말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천천히 속삭이는 노래였어. 바람 소리처럼 들려왔던 노래… 그래, 심장이 고동치듯이.”

그녀는 다시 그 가지를 튕겼다. 이번에는 너무 세게 튕겨서 다람쥐가 열매를 떨어뜨렸다. 다람쥐는 화가 난 듯 투덜거리며, 나무줄기 위로 잼싸게 달아나 버렸다. 나무껍질 부스러기들이 안나 머리에 쏟아졌다.

“어휴, 이런.” 그녀가 투덜거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끈적끈적한 나무진 덩어리를 떼어내었다. “저 쪼끄만 것이 한 짓을 봐, 벌!”

그녀는 나무를 쳐다보며 익숙한, 툭 쏘면서도 달콤한 전나무 냄새를 흠뻑 빨아 들였다. 올드마스터벌의 응답은 필요치 않았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그가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무진과 함께 빠졌다. 안나는 천천히 그것들을 손안에서 뭉쳤다. 낮의 마지막 빛이 여름 호박 같은 황금갈색을 띠며 어슴푸레 그들을 비추

고 있었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었지?” 그녀는 궁금해 했다. “아주 길어서 춤 출 때마다 흩날렸는데…”

갑자기 그녀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처량한 소리였다. 앙앙 우는 소리와 훌쩍훌쩍 우는 소리의 중간쯤 되는… 치이엿 치이엿.

안나는 주위를 뱅뱅 돌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 거기서, 다시 소리가 났다. 올드별 옆에 서있는 오두막집의 지붕에서부터.

그녀는 나뭇가지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그 지붕에 뛰어올랐다. 해초로 짠 레깅스로 짠 무릎이 초가지붕으로 빠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붕에 닿자마자 가지는 튀어 올라 오른쪽 엉덩이를 찰싹 쳤다.

“어휴, 벌,” 그녀가 꾸짖었다. “정말 이러기야!”

전나무의 바늘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나무 전체가 웃는 듯이 떨리는 것 같았다. 안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더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안나는 올드별만큼이나 그의 장난을 좋아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불안한 짚을 잡고 지붕 가장자리로 올라가서 마룻대까지 갔다. 맨 꼭대기 위에 서니 키가 더 커진 것 같았다. 키가 큰 나무 같았다. 마치 벌의 여동생 같았다! 그녀는 활짝 웃었다.

오두막의 한 쪽으로는 넘실거리는 파도로 줄무늬가 진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어두운 숲을 볼 수 있었는데,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며 물결치고 있었다. 안나의 왼쪽에는 끊임없는 바다가, 오른쪽에는 끊임없는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위와 모래와 해초가 얼려 있는 좁은 곳에 그녀의 세계, 그녀의 집이 있었다.

주인 멜윈이 그들 두 사람을 위해 지은 집이었다.

안나의 웃음은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희미해졌다. 주인은 변했다. 바다거품처럼. 그녀가 아홉 살이 되지 못했더라도 그쯤은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함께 바뀌었다. 이제 뭐가 없어져 버렸다. 그녀에게 필요한 무엇이.

하지만 뭐가 변한 것이었을까? 그가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은 아니었다. 또는 평소보다 더 툭툭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잡은 고기가 전혀 요리할 만한 것이 안 될지라도 항상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낮 동안 아무리 먼 바다까지 돌아다녔더라도 밤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왔다. 일 년 중 하루, 가장 멀리 있는 돌섬까

지 향해할 때를 빼고는.

그런데 그건 뭐였지?

안나는 두 볼에 짙 바다의 산들바람을 느끼며 석호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 쌍의 돌고래들이 얇은 물에서 뛰어올랐다. 두 회색 몸체는 모래언덕처럼 매끈했다. 엄마와 새끼 돌고래가 같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원한 것은 먹을 물고기와 누워 잘 짚더미 그 이상이었다. 주인은 줄 수 없는 것. 그녀가 종종 바랐던, 언제나 나무에 오를 준비가 된 친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

아니, 그녀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엄마였다. 그녀와 춤을 추고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진짜 엄마는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해 줄 수 있었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그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치이업.

그 소리! 젠장 그건 뭐였지? 그녀는 소리를 다시 들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초가지붕 위에서 조용히 서있었다. 그러나 바닷물이 굽이치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그녀는 저무는 햇볕에 조개껍데기같이 밝게 물든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숲 유령들의 눈을 그런 식으로 바로 쳐다보는 것은 불운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어쩌다 잊어버렸다면, 멜윈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이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번 한번인데 그녀를 해칠까?

그녀는 등을 똑바로 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어둠이 짙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수풀을 쳐다보았다. 유령들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 그들이 송곳니를 핥고 피 묻은 발톱으로 먹이를 나누는 곳.

그때 그녀는 숲의 가장 먼 언저리보다 더 위에 솟은 거대한 산등성이를 훑쳐보았다. 숲이 담요처럼 구겨져서 여러 타래의 안개가 하늘로 소용돌이치며 올랐다. 그리고 한 나무가 그 산마루 꼭대기에서 아주 크게 자라서 이곳에서도 그 형태를 볼 수 있었다.

그 높은 버드나무. 주인은 그녀에게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안개

속에서든 달빛에서든, 무엇보다 한낮에는 지금 그녀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뻗족하게 솟아있다.

그렇지만...

그녀는 산마루 꼭대기에서 아주 큰, 높은 버드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낮설고 새로운 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부풀게 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 나무는 뭔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숲을 가로질러 날 수만 있다면 옆으로 오라고! 나무껍질과 가지들을 만지라고.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라고. 어쩌면 심지어 나무에 오르라고...

치이업. 치이업.

다시 그 소리였다!

안나는 꿈에서 깨려는 듯 몸을 흔들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전보다 약해진 채 다시 들렸다.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심하게 다친 것이다. 간신히 그녀는 나무로부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왔다.

치이업.

그녀는 지붕 건너편에, 굴뚝 옆에서 작고 누더기가 된 등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개보다 더 작거나 비슷한 것이 있었다. 꿈틀거리며 살아있었다.

아기 새!

“내가 간다.” 그녀가 가장 다정한 엄마 새 목소리를 내면서 불렀다. 그리곤 두 팔을 날개처럼 넓게 펴 들보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푸드덕, 그녀는 지붕위에서 춤을 추며 걸음을 옮겼다.

“내가 간다, 귀여운 아가야. 빨리 날아갈게!”

그녀는 양팔을 더 한번 강하게 펴렷거렸다. 하지만 균형이 바뀌어 옆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바람이 올드벌을 흔들었다. 나뭇가지 중 하나가 그녀의 옆구리를 탁 쳤고 그녀를 다시 똑바로 세웠다.

안나는 모든 일이 아주 빨리 일어나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가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등지 쪽으로 계속 파닥 거렸다.

그녀가 지푸라기와 엉겅퀴, 거머리말로 만든 작은 통에 다가왔을 때, 여태 본 것 중 가장 앙상한 참새를 발견했다. 새의 회색 깃털들은 부서진 조개껍질에 붙어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그 새의 날개 중 하나는 거의 반이 구부러져 기형으로 보였

다. 그리고 새의 가느다란 노란 눈은 그녀를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오,” 안나가 속삭였다, “정말 착하고 멋진 아이네.”

그 작은 새는 그녀에게 부리로 쪼기만 했다.

그녀는 그 새를 주워 올려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이리 오렴, 같이 내려가자. 주인아저씨가 곧 오실거야. 분명 배가 고프시겠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너도, 그렇지?”

그녀는 그 참새의 날개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새는 사납게 쪼았다. “그래 괜찮아, 아기 새야. 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약간의 먹을 것, 약간의 온기,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멈췄다. “그리고 엄마.”

2장

그녀가 초가지붕의 끝에 다다르자, 안나는 수평선에서 흐릿한 형체를 보았다. 서서히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인아저씨 멜윈이었다! 그는 어스름한 자주색 물결을 가르며 석호를 가로질러 배를 저었다. 여러 줄의 해초는 듬성듬성한 수염처럼 선체에 매달려 있었다.

안나는 여기저기 모래를 뿌리며 뛰어서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앞치마가 허벅지에서 퍼덕였다. 호주머니 안에서, 참새가 화난 듯이 짹짹거렸다.

“이제 괜찮아, 아가야.” 그녀는 부드럽게 앞치마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처음 날았어. 맘에 들었니?”

참새는 작은 부리로 그녀를 물려고 했다.

“오, 난 좋아. 너는 아주 멋지게 해냈어, 정말이야. 언젠가 너는 멋지게 날게 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네 이름이 필요한데.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그녀는 새의 쭈글쭈글한 날개를 어루만졌다. “그래, 구름보다 훨씬 높이 날아오르는 새. 독수리 같은 새.”

그렇게 해서 이글은 그의 이름을 얻었다. 안나는 총총 걸음으로 새로운 새둥지를 만들기 위해 충분히 털이 촘촘한 이끼를 모았다. 그녀의 머리 위로, 올드마스터 벌의 가지들은 웃고 있는 듯 저녁 공기에 약간 흔들렸다. 초록의 바늘잎들이 모래를 뿌렸다.

안나는 이제 배가 해변에 다다르는 것을 보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부엌 선반 위에 둥지를 재빨리 던져놓고는 둥지 옆면을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 새를 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선 새에게 먹다 남은 고등어 약간을 던져주었다. 그때 오두막 문이 활짝 열렸다.

등이 굽은 늙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바다의 소금이 너무 많이 뒤덮여, 걸어 다니는 따개비처럼 보였다. 그는 끄얇은 소리를 내며, 대충 깎아 표면이 거친 식탁 위에 물고기 한 마리를 내려놨다. 그 테이블은 두 개의 유목 의자를 빼고 오두막에서 유일한 가구였다.

“고등어.” 안나가 밝게 말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 그의 눈을 보려 하였지만 그가 너무 빨리 몸을 돌렸다. 그래서 선반에서 가장 작은 칼을 가져와 양동이에 빗물을 조금 붓고 그 물고기를 씻기 시작했다.

노인이 다시 끄는 소리를 냈다. “아마 오늘밤은 굶지 않게 해 줄만큼 충분해. 어쩌면 이렇게 먹을 게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걸 보고도 이 냄비를 여기까지 들고 와야 하나?”

“오, 아저씨는 훌륭한 어부잖아요, 아저씨는 그저.”

“빌어먹을!” 그는 욕을 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질척한 스웨터를 벗느라 팔을 휘저으며 안나에게 바닷물을 튀기며 허우적거렸다. 마침내 모래 언덕 풀 새싹으로 짠 스웨터를 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의자위로 내던졌다. 스웨터는 흙바닥에 떨어졌다.

그 늙은 남자는 다른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의자 다리 중 하나는 찌그러져있었다. 그는 다시 욕을 퍼부으면서 그 부서진 의자를 오두막 대들보에 받쳐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앉아 바닥에서 형클어진 그물망을 잡아 풀린 매듭을 묶기 시작했다.

안나는 물고기를 보러 다시 왔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주인을 위해 종종 하던 것이었다. 그가 드러내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녀는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가 주인을 즐겁게 해준다고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최고조에 달한 파도와 긴 목의 갈매기, 뛰어오르는 돌고래들과 밝은 파란 조개껍질에 대해 노래했다. 그때 오래전 그녀가 만든 노래가 들려왔다.

*은빛 고래, 은빛 고래, 집으로 내게로 헤엄쳐오네
난 너의 닻, 너의 바람받이, 너의 그늘이니까.
넓은 너의 꼬리, 그래 바다처럼 넓어
은빛 고래, 은빛 고래, 집으로 내게로 헤엄쳐오네.*

*어린 물개, 어린 물개, 집으로 내게로 미끄러져오네
난 너의 하늘나라, 너의 바람받이, 너의 그늘이니까.
부드러운 너의 코, 그래 바다처럼 부드러워*

어린 물개, 어린 물개, 집으로 내게로 미끄러져오네.

솜털 새, 솜털 새, 집으로 내게로 날아오네.

난 너의 착륙장, 너의 바람받이, 너의 그늘이니까.

촉촉한 너의 날개들, 그래 바다처럼 촉촉해

솜털 새, 솜털 새, 집으로 내게로 날아오네.

너희들 모두, 너희들 모두, 집으로 내게로 오네.

난 너희 모두의 집: 나는 바다!

해안선 너머로 들려가, 그래 산과 나무

하지만 너희 마음은 집으로 내게로 언제나 돌아올 거야.

안나는 일을 하면서 노래할 때 맨발로 흙바닥에 발을 굴렀다. 가끔 옆으로 한쪽 다리를 차거나 한 바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주인은 안나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주인은 툭툭거리며 그물을 옆으로 내던졌다. 그는 뺏뺏하게 난로로 걸어갔다. 그는 석탄에 바람을 불어넣고는 나뭇조각을 몇 개 더 놓았다. 방은 따뜻해졌고 젖은 스웨터는 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색 산호 덩어리를 조각한 파이프에 손을 뺐었다. 주머니에서 마른 해초를 조금 꺼내 난로의 불씨를 따라 파이프를 감쌌다. 녹색 연기를 몇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안나의 노래와 춤을 보기위해 몸을 돌렸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너 내가 집에 왔을 때 밖에 있었지.”

그녀는 고등어에서 눈을 들었다. “네.”

“너 내가 없을 때 숲에 들어가지 않았지?”

“안 갔어요.”

그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다 금세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틀림없이 해변에서 춤췄지.”

안나의 두 볼이 살짝 붉어졌다. “저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넌 춤추는 걸 좋아하지. 네가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춤을 췄지.” 그

는 한 줄기 연기가 나는 파이프를 잡은 손을 흔들었다. “바로 이 방바닥에서.”

안나는 거의 활짝 웃었다. 주인의 기분이 나아졌다. “어땠어요? 아저씨가 숲에서 날 발견한 날 말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굳어졌다.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숲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마라.”

“저…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녜요.” 그녀의 목소리는 새끼 갈매기처럼 떨렸지만 말을 이었다. “그냥 아저씨가 날 찾은 곳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여기서 났어!” 그는 소리쳤다. “바로 여기 이 오두막집.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알아듣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알겠지?”

“네,”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

“좋아.” 그는 회색 머리칼을 이마에 훑날리며 날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무들을 가까이서 보려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 유령들은 순진한 여자애라고 봐주지 않아.”

안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냄비에 라드를 넣기 시작했다.

“너를 피가 나게 갈기갈기 할컬 거야. 그놈들이” 그는 그의 손가락 마디를 비볐다. “아님, 그 짝 움켜잡는 발로 뼈째 박살을 낼 거야! 이런, 숲은 정말 내가 가야 할 때만 들어가.”

“나무 기둥이나 그물을 만들 덩굴을 구할 때죠.” 그녀는 들은 기억이 나서 그의 말을 끝냈다. “알아요, 아저씨, 알아요.” 그가 노력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녀는 냄비에 물고기를 슬며시 넣고 난로로 가져갔다. “저한테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손을 불쑥 내밀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난 꼭 해야 돼, 로완나.” 그의 회색 눈동자가 이글거리면서 아주 짝 움켜잡는 바람에 그녀는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유령들은 네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 아픈 팔꿈치를 문질렀다.

그의 이마에 거미줄 같은 주름이 드리웠다. “9년 전이었지, 로완나, 내가 저 숲을 지나온 게. 너를 발견했을 때, 아주 아기였고 혼자 높은 버드나무의 뿌리에서 울부짖고 있었어.”

안나는 놀라 움찔했다. “버드나무라고요? 아저씨가 절 거기서 찾았다고요?”

“그 숲에서 내가 널 찾았다고! 제기랄! 그게 중요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한숨 쉬 듯 떨어졌다. “그놈들이 네 부모님을 데려갔어, 확실해. 우리 어머니의 무덤의 귀신을 걸고 맹세하지. 그놈들은 거의 우리를 잡을 뻔 했지.”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유령 숲은 피 냄새가 나는 사람이 갈 장소가 아니야. 절대 갈 곳이 아냐. 알겠니?”

“네.” 그녀는 천천히 난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대한 궁금증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버드나무. 그녀가 그 버드나무에서 발견됐었다! 어느 한쪽도 다시 말하지 않았다. 안나는 물고기를 불에 올려놓고 석탄을 살폈다. 곧,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툭 쏘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불빛이 벽면과 그들 머리 위, 연기에 그을린 초가지붕에 번뜩였다.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이 덧문을 핵 열었다. 안나가 문을 닫으려 달려 나가자, 벌의 나뭇가지 중 하나가 안으로 뻗쳐 들어와 그녀의 팔뚝을 간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를 밖으로 밀고선 문을 잠갔다. 장난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인에게 더 말할 것이 있었다. 그녀가 물어봐야만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이글의 등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새는 한쪽 발을 위로 들고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 그녀는 해초 케이크 껍질을 새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난로로 돌아와 생선을 뒤집고 다시마와 수박풀을 조금 더했다. 곧 식사가 준비됐고 그녀는 식사를 식탁으로 가져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먹기만 했다. 안나가 주인에게 큰 병에서 둔베리에일을 따라줄 때, 그는 감사의 표시로 간신히 끄 하는 소리를 냈다. 드디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한가지만? 그리고 만약 아저씨가 대답해주신다면,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노인은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 버드나무… 그 위는 어땠어요?”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냥 조금만 말씀해주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어떤 표시나, 뭐든, 엄마의…”

“없어!” 그가 식탁을 매우 세게 쳐 식탁이 덜거덕거렸다. “내가 본 것이라곤 날 잡아먹으려 다가오는 유령들이었어! 머리가 어떻게 됐니, 로완나? 그 빌어먹을 나

무, 그 숲에는 온통 죽는 거 말고는 없어. 알아듣니?” 그의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죽음밖에 없다고.”

그녀는 얇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두막 너머 저편에서 올빼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공기에 메아리쳐 들려왔다.

3장

이글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졌다. 더 강해졌지만 커지진 않았다. 어떤 새라기보다는 깃털이 있는 쪼그라든 박주가리 꼬투리처럼 보였다.

그는 어쨌든 더 대담해졌다. 봄이 첫 꽃을 피우고 올드벌에 새 초록 바늘잎이 움틀 무렵, 새는 선반이나 식탁, 또는 안나의 쪽 뺨은 팔위를 뿔내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지저귀는 것도 시작했다. 또 안나가 가는 곳이면 실내든 바깥이든 따라다녔다.

하지만 날지는 못했다. 그의 어깨에 뒤틀린 날개가 매달려 있었고 옆으로 깃털 뭉치가 뭉쳐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매서운 눈에 잡힌 것이라면 죽어있는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공격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이제 그거 돌려줘, 이글.” 안나가 명령했다.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서 모종, 구근, 덩이줄기를 삼년간 채집하고 모래흙을 일궈 오랜 시간 후 얻어낸 정원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건 내 유일한 마늘 한쪽이라고! 이 못된 녀석, 이글! 파종하려면 그게 필요해.”

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리에 마늘을 물고서 독사뱀이 하는 것처럼 끌고 갔다. 그는 사납게 발을 차면서 건강한 날개로 그의 적을 때리며 모래 위에서 몸을 흔들었다. 때때로 그는 바다의 넘실거리는 파도까지 간신히 들릴 만하지만 몹시 사나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안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네 안엔 전사가 있어. 그래 좋아, 괜찮아. 네가 그것을 죽인 후에는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이글이 실랑이를 벌이다 멈췄다. 그의 먹이를 놓지 않은 채, 노란 눈동자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새는 거의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머리를 까닥거렸다.

“좋아,” 그녀가 답했다. “그럼 난 이 양파 구근을 줄 생각이야.”

그녀는 야들야들한 해조 줄기로 엮은 바구니로 손을 뻗었다. 아주 작은 녹색 구근을 끄집어내서 흙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올려보지 않은 채 다른 것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이번에 그녀는 공기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바구니가 사라졌다!

그녀는 허리를 곧추세워 꼳꼳이 앉았다. 어디로 사라질 수 있지? 바구니는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졌다. 갑자기 그녀는 찾아냈다. 숲 가장자리의 바위에 있었다.

“참 이상하네.” 그녀는 매우 잘 아는 전나무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니다. 올드마스터벌의 긴 가지들이라도 그렇게 멀리 뻗을 수는 없었다. 이상하다! 그녀는 매우 약한 바람만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채 서 있다가 바구니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 술 더 떠 올드벌에게 엄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나무는 해변에 바늘잎을 떨어뜨리며 어깨를 으쓱거릴 뿐이었다.

바구니는 바위 위에 잎이 막 나기 시작한 어린 오크나무 그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가 바구니에 두었던 어느 것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당근 씨앗, 붉은 양배추, 무, 꽃양배추, 거기다 갯배추의 뿌리줄기와 나머지 양파 구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궁금해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파문이 이는 소리인데 웃음소리인 듯했다. 그 소리는 오크나무 저편 뻗뻗한 나무들 사이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녀는 숲을 들여다봤지만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 “흐음. 아마 그냥 다람쥐가 장난치는 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바구니를 가지고 정원에서 일을 하러 돌아왔다. 한낮이 될 때까지 이글이 난도질한 마늘을 포함해 모든 종자들을 심었다. 긴 계가 정원 가장자리를 총총 걸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모래에 드러누웠다. 짠 산들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왔다. 이글은 깡충 뛰어 안나의 다리 그늘에 앉았다.

그녀는 머리 위로 흘러가는 구름들을 보며 모양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여기는 가리비 껍데기, 저기는 가느다란 해조. 하지만 그 모양들은 길게 뻗어나가 저절로 나무 모양으로 되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몇 줄기의 뻗뻗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특히 한 나무, 특히 한 장소가 커져갔다. 하지만 그곳은 마음속으로도 그녀가 가면 안 되는 장소였다.

그녀는 일어나 앉았다. 이글은 우둘투둘한 날개를 담요삼아 그녀 옆 모래에서 이내 잠들었다. 지금은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전혀. 그가 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 그리고 그녀는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갈까?

그녀는 목이 메었다. 일어나 올드마스터벌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전나무의 울퉁불퉁한 몸통은 그녀가 오는 길에 인사하듯 구부러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큼하고 달콤한 친숙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나 어디로 가야할지 알겠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높은 버드나무야.”
높은 전나무가 상쾌한 바람과 함께 몸을 떨었다.

“괜찮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도.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어, 별.”

그녀는 엄지발가락으로 뿌리 사이사이 떨어진 바늘잎들에 흠을 덮었다. “설명할 수는 없어. 아마 그냥 주변에 가장 큰 나무를 오르는 거야! 아니면 잠시 여기서 떠나는 거야. 아니면... 내 친부모님의 어떤 표시를 찾는 거야. 내 친엄마.”

그녀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벌을 오르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한손 그 다음 한손, 하지만 이번엔 얼굴에 바늘잎이 묻어서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손, 발, 무릎에 끈적끈적한 진액이 묻었다. 하지만, 이내 꼭대기에 다다랐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유령들의 음침한 은신처와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딱딱거리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 너머의 먼 산등성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이런 쟁쟁. 버드나무는 안 보였다! 안개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안나는 눈으로 직접 그 수증기를 꿰뚫기를 바라며 쳐다보았다. 주인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높은 버드나무를 가까이 볼 수 없을 지라도 멀리서나마 지금 봐야 했다. 봐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녀가 더 바라볼수록, 안개는 더 모여들었다. 너무 뚫어 본 나머지 그녀의 눈은 축축해졌다. 바닷가 별들이 비치는 가운데 그 나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아래로 내려왔다. 올드벌의 가지들이 그녀의 두 어깨를 두드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땅에서 다시 속삭이는 가지들을 올려 보았다. “알겠어, 노래를 생각해야 해. 그래, 활기찬 걸로. 이글이 깨어날 때 불러줄 노래로.”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머릿속에 음악이 안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저 바다의 끊임없는 파도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정원으로 몸을 돌렸고 그때, 그녀는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박은 듯 멈췄다. 그녀의 바구니가 다시 사라졌다!

그녀는 주변을 빙그르르 돌며 해안선과 오두막집, 그리고 숲의 어두운 가장자리들을 훑어보았다. 바구니는 아무데도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알아챘다. 바로 잠시 전 해변에서 그녀가 쉬었던 바로 그곳!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구니가 잠든 새 옆에 손잡이로 균형을 이루어 거꾸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위에 드리운 모자처럼 그에게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아니면 모래에서 자라난 작은 나무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4장

몇 주가 지났다. 안나가 첫 번째로 심은 무들이 땅에서 쑥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주글주글하고 엉걱퀴보다 부드러운 이파리가 숲 가장자리 옆에 줄기들에서 돋아났다. 아무렴, 그녀가 모래를 차며 해변으로 춤을 추면서 내려가면 그것들을 볼에 문지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지만 이것이 높은 버드나무를 보고 싶은, 커져가는 바람보다 안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만질 수 없으므로 눈으로 그것을 만졌다.

적어도 하루 한번 조류의 변화처럼 확실히 그녀는 올드벌에 올랐다. 물론, 그녀는 언제나 주인이 아침 잔소리를 끝내고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먹은 후 등에 아주 커다란 집을 달고 있는 소라게처럼 생긴 배에 그물을 모두 싣고 장비를 장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배가 바다로 미끄러져 가고 수평선에 떨어지고 난 후, 그녀는 그가 금지한 것을 했다. 그녀는 그 나무의 가지에 올라갔다. 그리고 먼 등선을 바라봤다.

그녀가 발견된 그 나무를.

가끔 그녀는 안개 속에서 빠져나온 위로 들린 가지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 아니면 희미한 초록빛이랄까. 아니면 구름 뒤에 그늘진 형상.

하지만 그녀는 나무 전체를 본 적은 없다. 한번도.

짜증이 났다! 그리고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녀의 뒤집힌 바구니처럼 이상하게 숲에서 들려오는 찢어지는 웃음소리. 그건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샌들이 첫 번째였다. 성계를 좀 모으려 얇은 물을 걸은 후 샌들을 햇볕에 말리려 두었었다. 그때, 잠시 후, 샌들이 사라졌다! 그냥 해변에서 없어졌다.

샌들을 잃은 것은 스스로 사라진 것이겠지만 그녀를 그렇게 짜증나게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대개 맨발로 다녔다. 그건 기이한 것이었다. 미스터리는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딱정벌레 등에 붙은 송진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 이후 그녀에게 마가목 나뭇잎들을 발견하는 날이 왔다. 숲의 가장자리 전나

무에서 아주 많이 자라고 있었다! 그건 정말 이상했다. 매우 이상한 나머지,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해 숲의 경계선인 검은 딸기나무 덤불을 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그 마가목 가지는 전나무에 접붙여져 있었다! 음, 재주가 좋고 유머감각도 좋은 누군가에 의해.

또 다른 아침, 바다는 구름을 올려다보는 넓은 파란 눈처럼 고요해 보였다. 안나는 모래위에서 몇 바퀴를 돌았고 발자국 소용돌이를 뒤에 남겼다. 그때 그녀는 젖은 모래 위 몇 개의 다른 자국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녀가 만든 자국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인의 배가 밤에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고르지 못한 원을 봤다. 그리고 많은 구부러진 선들도. 얼굴 모양인가?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인의 얼굴! 음, 그러네!

그녀는 놀라 고개를 흔들었다. “도대체 누가 이랬지? 주인아저씨는 아니야, 확실해.”

그녀는 그 그림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만한 크기로 그려진 그 선들을 따라갔다. 그냥 우연인가? 게 발자국 아니면 높은 조류의 떠 밀려온 돌맹이들? 아니다, 이 얼굴 그림은 노려보는 표정까지 너무 완벽하다.

그녀가 요즘 자주 그랬듯이, 올드벌을 의심스럽게 흘끗 봤다. 하지만 나무는 그냥 거기 서서 그녀를 모른 체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별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는지 그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녀의 샌들을 뺀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

그녀의 생각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 전나무가 흔들렸다. 몇몇 가지들은 삐걱거리거나 빙그레 웃었다. 안나는 잠시 더 본 후, 모래에 얼굴 돌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인의 걸걸한 목소리를 한껏 흉내 냈다. “빌어먹을! 왜 그 모래를 내 냄비에 붓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됐니, 로완나?”

그 얼굴은 훨씬 더 노려보는 듯 했다. 그녀 뒤에서, 올드벌은 다시 싱긋 웃었다. 안나처럼.

이글은 안나의 어깨 위 햇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모래 위에 철퍼덕 소리와 함께 착륙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인의 불을 향해 활보하고 성난 듯 지저귀기 시작했다.

“조심해, 버릇없는 새 같으니라고!” 안나는 소리 안내고 웃기는 어려웠지만, 좀 진정되었다. “안 그럼 너를 물고기 밥으로 줄 거야. 네 앙상하고 남아빠진 꿈무니 깃털을 두고 맹세하지, 틀림없이 할 거야!”

이걸 듣고 새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다. 그는 그림의 코 위로 뛰어서는 그의 작은 부리로 쪼아대기 시작했다.

안나는 작은 전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을 온통 쪼았지만, 그녀는 새를 두 손으로 모아 올렸다. “이제 괜찮아, 친구야. 네가 너무 무섭게 해서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이글은 그녀의 손바닥 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전혀 확신이 없는 듯 보였다.

“여기. 네 용기에 대한 상.”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끈끈한 벌집 한 조각을 두른 오크 나뭇잎을 끄집어냈다. 그녀는 그 이파리를 벗기고 끝을 쪼개 그에게 줬다. 하지만 그 용감한 새는 아직도 죽은 척하는 그의 적에게서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안나는 직접 벌집을 한입 베어 물었다. 그녀는 생각하며 그것을 씹었다. “좋아, 그림. 내가 죽일까? 그럼 너도 진짜 사라졌다고 알겠지.”

이글은 몇 차례 짹짹거렸다.

그녀는 새를 어깨위에 다시 올리고 벌집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 그림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것을 막 건드리려는 찰나.

세찬 바람이 몰아쳤다.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무들은 비틀거리고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소리를 냈다. 올드마스터벌의 낮은 가지들은 모래를 찰싹 쳤다. 갑자기 이전 봄에 버드나무 새싹으로 짠 안나의 썩 보닛이 머리위에서 날아갔다.

그녀는 모자를 잡으려 펄쩍 뛰었지만 너무 늦었다. 보닛은 공중에서 돌아 검은 딸기나무 위를 날아 숲속으로 갔다. 모자는 전나무의 접붙인 가지의 맨 끝에 착륙했다.

“이런 쟀장!” 그녀는 검은딸기나무 덩불을 뛰어 넘고 보닛을 따라 뛰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닛을 잡으려는 순간, 다시 세찬 바람이 그것을 잡아채고 숲 안 조금 더 멀리 있는 느릅나무로 날려 보냈다. 모자가 거기 낮은 나뭇가지 위에 바람에 흔들거리며 안착했다.

그녀는 마른침을 삼켰다. 그리곤 그녀는 어깨 너머로 오두막집과 해변의 안전한 곳을 훑듯 보았다. 이글은 안나의 어깨를 움켜쥐며 걱정스러운 듯 그의 건강한 날개를 펴려다. 그는 지저귀려고 했지만 꿀을 베어 먹은 탓에 부리가 붙어 숨차게 짹짹거릴 뿐이었다.

“자, 섣.” 그녀가 새에게 말했다.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우린 여전히 해변과 매우 가깝잖아.”

안나는 숲으로 다시 갔다. 그녀는 햇볕에 드리워진 느릅나무에 있는 보닛을 바라봤다. 고작 열다섯에서 스무 걸음 떨어져 있었다.

다시 그녀는 해안을 훑듯 보았다. 그러곤 다시 보닛을 봤다.

“그 모자를 짜는데 두 달이 걸렸다고.” 그녀가 투덜댔다. 그녀가 주먹을 쥐자, 벌집에서 꿀이 흘러내렸다. “어느 멍청한 늙은 바람도 내 모자를 못 가지고 가.”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5장

갑자기 모두 새로운 세상이다. 이제 안나의 발은 모래에 빠지지 않았다. 그 발들은 낙엽 방석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짠 바다냄새가 자극적인 송진과 꽃, 비옥하고 젖은 흙냄새로 인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출렁거리는 파도와 끼익하고 우는 갈매기 소리는 나뭇가지들의 속삭임에 잠잠해졌다.

하지만 안나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보닛은 이제 팔을 뻗은 만큼 떨어져 있다!

그녀는 모자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때 세찬바람이 몰아쳤다. 빌어먹을! 보닛은 그녀가 뻗은 손 위를 날아 기울어진 산사나무 몸통에 부딪혀 하늘로 다시 튕겼다. 마치 나무들이 캐치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 후 그녀의 모자는 암사슴과 그의 점박이 새끼사슴의 등에 앉았고, 그 사슴들은 갈색 눈동자를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 모자는 숲의 훨씬 더 깊은 곳에 서있는 너도밤나무 위에 앉았다.

안나가 움직이기 전에 너도밤나무의 낮은 가지들 중 하나가 위로 들려서 바로 옆에서 사슴의 엉덩이를 때렸다. 하지만 사슴은 달아나지 않았다. 사슴은 머리를 치켜들고서 오랜 친구처럼 그 가지에 코를 비볐다. 안나는 그걸 보고 놀랐다. 그때 두 마리 암사슴과 새끼는 숲 속으로 느릿하게 걸어갔다.

사실, 이상하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자를 원했다! 그녀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고사리 발을 통해 곧장 너도밤나무로 달려갔다.

그녀는 위로 그 가지들을 올려다보았다. 그것들은 아침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나무껍질은 파도에 씻긴 돌들처럼 매끄러웠다. 그리고 그 가지들 위에 모자가 있다! 그녀의 어깨 위 참새는 용감하게 지지귀었다. 그녀는 땅에 벌집을 떨어뜨리고 가지에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당겨 올렸다.

꼭 올드벌과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더욱더 높이 올라갔다. 몇 분 후, 그녀는 그 상판을 향해 몸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몸을 즐기 바깥으로 기울여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한 손은 보닛을 향해 뻗었다. 더욱더 멀리 뻗었다.

잡았다! 이글이 승리의 노래를 했다.

그녀는 모자를 머리에 딱 맞게 눌러쓰고선 아래로 내려왔다. 마지막 가지에서 그녀는 꺾충 뛰어서 튼튼한 뿌리들 사이 조그만 이끼에 착지했다. 만족감에, 그녀는 보닛의 채를 두드렸다.

안나는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녀는 멈췄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지!

그녀는 고사리 밭과 긴 풀들, 그리고 봄의 블루벨이 숨겨진 초원, 숲 공터의 맨 가장자리에 서있었다. 나무를 둘러싼 가지들을 통해 빛이 들어왔다.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쏘살같이 움직였고, 작은 나비 한 마리는 잔디 위에서 노란 구름처럼 떠다녔다.

그녀는 턱을 쓰다듬었다. 도대체 이 세상은 그녀가 사는 해안가와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또한,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도 달랐다. 피에 굶주린 유령들이 정말 여기 산다고?

그녀는 거대한 너도밤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몸통은 정말 컸다! 아마 나무를 다 두르려면 다섯에서 여섯 사람은 팔을 뻗어야 할 것이다. 은색의 나무껍질은 흥합 꺾데기의 속처럼 빛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몸통 아래서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은 점, 동굴이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기어갔다. 동굴이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도 너끈하게 들어갈 만큼 컸다. 그녀는 고개를 까딱하며 이글을 톡 쳤다. “보이니? 비밀의 동굴이야!”

새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거리며 어두운 동굴 속을 바라보았다.

“이리와. 어디 좀 보자.”

이글이 말을 안 듣고 뺨 소리를 냈다.

“자, 이리와. 어쩌면 비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보물과 보석과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새의 굽은 날개를 어루만졌다. “아무도 우릴 해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나를 보호해줄 네가 있잖아.”

참새는 가냘픈 가슴을 조금 부풀어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굴속으로 몸을 수그렸다. 그곳은 조용했다. 매우 조용했다. 그녀는 나무 벽들 속에서 자기 숨소리의 메아리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그녀는 나무의 몸통 안을 타고 흐르는 두껍고 검은 등선들을 볼 수 있었다. 수직으로 뻗은 뿌리는 흑 누군가의 팔뚝 혈관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굴 벽에 기댔다. 등을 기댄 나무는 따뜻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물이라면 나무는 컵인 것처럼 그녀의 몸에 꼭 맞춰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나무에 안겨 있는 것이 좋았다. 아늑했다. 엄마의 팔처럼이나 아늑했다.

갑자기 울부짖음이 들려와 그녀는 펄쩍 뛰었다. 그 소리는 바로 나무 밖에서 들렸다! 그녀는 굴 입구로 몸을 돌렸고 바로 그때 한 새끼 곰이 공터로 뛰어왔다. 그의 갈색 털은 까끌까끌한 씨앗들과 진흙더미로 덮여 이글의 깃털처럼 지저분해 보였다. 흐느적거리는 다리와 매우 큰 발, 그리고 늘어진 귀를 보고 안나는 웃음이 나왔다.

바로 그때, 털이 모래 색깔인 또 다른 곰 한 마리가 뛰어오고 있었다. 그 곰은 심지어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첫 번째 곰을 들이받고 납작하게 때려눕혔다. 더 작고 말랐는데도, 그 모래 색 곰은 장난이 심한 것 같았다.

두 새끼 곰들은 레슬링을 시작했다. 서로 번갈아 가며 풀밭에 넘어져 놓고 굴렀다. 갈색 곰이 위에 앉았다. 하지만 모래 곰이 몸을 틀어 벗어났다. 그리고 더 작은 곰이 덮쳤지만 고사리 발으로 내던져질 뿐이었다. 다시 그가 돌아와 재빠른 송사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다리, 발, 털이 복슬복슬한 목을 서로 감쌌다. 악을 쓰고 으르렁대는 소리가 숲에 메아리쳤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떨어졌다. 갈색 곰은 다른 곰이 코로 그를 쿡쿡 찌르며 까불고 있는 동안 혈떡거리며 고사리를 짓밟았다. 모래 곰은 분명히 더 놀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나는 그들이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서로에게 으르렁대는 것을 보았다. 오, 곰은 정말 재밌군! 그때 모래 색깔의 새끼가 뒷다리로 서 몸을 들어 올리고 거의 웃음소리에 가까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보았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들어본 웃음소리와 같았다.

그 새끼 곰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하더니, 커다란 너도밤나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처음으로, 안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사나운 눈을, 무섭도록 사나운. 그 눈동자는 그녀처럼 녹색이었지만 더 어두웠다. 숲만큼이나 깊어 보였다. 그리고 빛났다, 한 쌍의 마법의 달처럼.

그 곰은 귀를 펴리며 나무쪽으로 성큼성큼 달렸다. 안나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가 그녀에게 곧장 오고 있다! 그녀는 이글의 부리를 손으로 막고 동굴 깊숙

이 몸을 움츠렸다.

“조용해, 이글,” 그녀가 속삭였다. “소리 내면 안 돼.”

동굴 입구 바로 앞에서, 곰은 멈춰 섰다. 그는 낮게 수그리고선 뒤틀린 뿌리들 사이에서 코를 킁킁거렸다. 잠시 후, 그는 머리를 들었다. 뭔가 그의 혀에 달라붙어 있었다. 벌집이다! 기쁘게 으르렁대며, 그는 그것을 삼켰다. 그때 갑자기 이글이 안나가 움켜잡은 손에서 빠져나와 화난 듯 지저귀었다.

그 곰은 뒤로 점프했다. 벌집을 뺐었다. 그리고는 으르렁대면서 동굴로 가까이 어기적거리며 다가갔다.

갑자기 그는 그 굴에 머리를 밀쳐 넣었다. 그는 안가와 얼굴을 맞대었다! 둘 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구멍 안을 울렸다.

그 새끼 곰은 빙그르르 돌아 숲으로 질주했다. 고사리 밭에 있는 그의 친구는 그 뒤를 따라 꺾충꺾충 뛰었다. 그리고 안나는 반대 방향인 해안가로 다시 달려왔다.

이제 숲 공터는 다시 텅 비었고, 고사리와 봄의 블루벨은 비스듬한 빛에 반짝였다. 오직 작은 벌집 조각만이 이끼가 있는 땅에 남겨져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암시했다.

6장

안나는 공터에서 꿈을 마주쳤던 그날 이후, 종종 그 이상한 녹색 눈의 꿈이 생 각났다.

“그 꿈은 우리랑 놀 수 있어, 별! 정말이야. 놀 수 있어.”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주인이 낚시를 떠나자 이내 나무 그늘 아래 가 섰다. 그녀의 발가락들이 이끼가 난 뿌리들을 쳤다. “그리고 어쩔... 내 친구가 될지도 몰라.”

잎이 듬성듬성 자란 늙은 전나무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몇 개의 바늘잎이 떨어 지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흩날렸다.

“같이 달릴 수도 있어. 서로 숨바꼭질도 하고. 또 나무도 오를 수 있어!”

바늘잎이 더 떨어졌다.

그녀는 손에 잡은 까매진 냄비를 내려다봤다. 그것을 바닷물에 씻으려고 갖고 나온 것이다. 냄비는 아직도 아침 식사로 구운 청어와 해조 케이크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그 꿈이 아마도 신선한 산딸기를 더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먹은 아침식사를 아주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활짝 웃었다. 그래, 숲 어딘가에 잘 익은 산 딸기들을 좋아하겠지.

그녀는 입 꼬리를 내렸다. ‘숲 어딘가로. 그 꿈을 찾으려면 다시 거길 가야할거 야. 아마 전에 보다 더 깊숙이. 그리고 개와 놀려면 더 깊숙이 가야할거야. 바로 유령들의 품으로!’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는 올드벌에게 기댔다. “내 생각에 친구를 찾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녀의 아래턱이 떨렸다. “엄마도.”

그녀는 가지들을 올려다보았다. “엄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지, 별? 그리고 나한테는? 또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엄마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숲으로 데 려왔을까? 아니면 너의 바늘잎 중 한 개처럼 어느 날 나를 바닥에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걸까?”

안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 줄 수 없었다. 아무 도. 높은 버드나무만 빼고. 그녀는 그걸 알아내려고 그곳에 갈 수는 없다. 그 모든 유령들 때문에.

그녀는 전나무의 몸통을 두드리곤 물가로 내려갔다. 시원한 바람이 물을 튀기고 그녀의 머리칼을 헝클어뜨렸다. 이글은 언제나 불가사리나 굴 껍데기의 갑작스런 공격을 경계하면서 그녀 옆에서 해변을 깡충깡충 뛰었다. 그의 발이 모래 위에 가느다란 발자국 길을 남겼다.

그녀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찼을 때 해변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다음 파도가 왔을 때, 그녀는 쉬익 소리를 내면서 철벽거리며 냄비를 물에 담그고 작은 스펀지 조각으로 박박 문질렀다.

“꿈 깨,”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넌 엄마가 없어, 그게 진실이야. 하지만 너한테 올드별이 있잖아. 이글도. 또… 누구도.”

그녀가 오두막집으로 고개를 돌렸다. 주인이 오래 전에 지은 그 집. 그의 튼튼한 작품은 여러 차례 폭풍과 숲 유령들로부터도 지켜줬다. 매년 여름, 주인이 가장 멀리 있는 돌섬으로 노를 저어 배 위에서 자는 그 어느 날 밤에도 유령들이 오두막에 와 문을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안전했다. 주인 덕분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냄비를 흔들었다. “그래, 나처럼 사람인 그 누구.”

안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나무에 오를 만큼 아저씨가 활기차진 않아. 하지만 나와 같은 말을 하잖아. 그리고 아저씨는 바로 여기 살고.”

그녀는 냄비를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계획도 함께.

다음 몇 주간, 봄이 오두막 주위에 꽃을 피웠다. 나뭇잎과 덩굴, 솔방울과 꽃들이 숲 가장자리의 나무들에서 싹이 돋았다. 산딸기들이 검은딸기나무 여기저기에 맺혔고 페리윅클 껍데기가 모래 틈에서 터진 듯 아주 작고 밝은 파란 꽃들이 폈다. 안나의 정원은 거의 숲처럼 하루마다 녹음이 우거져 보였다.

그 꼭대기에, 물새들의 온갖 종류가, 여러 곳에서 날아왔다. 왜가리, 갈매기, 가마우지, 오리, 펠리컨, 심지어 거대하고 꼳꼳한 다리를 가진 두루미도 해변에 바로 날아왔다. 온종일 그들은 해안을 점잖게 걸으며 웅덩이에 피라미드를 잡아먹고 공중에서 날개 짓을 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서로 물을 튀기고 뽁뽁거리며 끼룩 끼룩 댔다. 그리고 거인들 틈에 난쟁이처럼 그 사이를 누비는 이글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오두막 안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해변에서 풀로 엮은 자루에 보송보송한 깃털들을 주워 놓으면서 주인에게 줄 새 베개를 만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요의 짚을 바꿨고 양파와 마늘을 기둥에 매달고 난로를 청소하고 유목 의자를 고쳤다. 신선한 물을 담은 물개 가죽을 기웠다. 그리고 숲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에서 신선한 박하를 주웠다. 심지어 누에고치를 찾아서 덧문에 걸쳤다.

노인은 처음엔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서서히 안나는 그에게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에 조금 덜 투덜대고 아침에는 오두막에 좀 더 머무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노래해보라고 했고 그녀는 기쁘게 노래했다. 때때로 그는 생선의 더 큰 부분을 주거나 해산물죽을 만들기 위해 가리비를 자르는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한번은 매우 놀랍게도 문을 나서기 전에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꼭 쥐었다.

누에고치 문이 열렸다. 날개가 온통 다 축축하고 구겨진 분홍색 줄무늬의 숙녀가 새롭게 돌아난 고사리처럼 올라 나왔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나비는 방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것은 이글의 경보음을 모두 무시하고 이글의 머리 위로 쏜살같이 날아갔고 안나의 꽃병의 물을 마셨다. 주인의 귀 위로 날아와 앉자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오두막집의 벽을 흔들었다.

그리고 주인이 고기잡이에서 집에 돌아와 배의 썩은 판자들을 고치려 머무르는 날이 왔다. 안나는 그 옆에서 일했다. 그녀가 올드벌의 나무껍질에서 진액을 모아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는 동안 그는 도끼로 새로운 유목 조각을 잘랐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선체의 틈새를 찾고 나무 조각을 맞춰 그 주위에 끈적끈적한 나무진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안나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이었다. 나무의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바닷물에 헤지고 짊여도 그 결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결을 갖고 있는 게 궁금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발자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선체에서 올려다봤다. “노래 좀 불러봐, 지금 해볼래?”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다.

물 위의 나무, 파도 위의 배,

높이 치솟는 회색 갈매기:

나는 바다에 있네.
내 혀의 소금기, 내 이마의 바람,
끝없는 수평선이 여기 펼쳐져:
이제 나는 자유롭네.

노래를 끝마쳤을 때, 그녀는 새로 맞춘 판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아저씨랑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 그는 선체에서 올려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는 파이프에서 녹색 연기를 한 모금 뿜었다. “언젠가 어쩔 너도 나와 고기잡이를 갈 거야. 하고 싶으면 그물을 끌 수도 있어.”

안나는 그 말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그녀를 배를 태워 바다에 데리고 가본 적이 없었다. “오, 정말 하고 싶어요, 할게요!”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았다. “저도 제발 가게 해주세요!”

“좋아, 얘야. 네가 좀 더 크면.”

그녀는 그를 풀어주고 배의 끝부분으로 꺾충 뛰어 돌아갔다. 그녀는 해변에서 모래를 선체에 튀기며 완벽하게 한 바퀴를 빙그르 돌아 춤을 쳤다. 뒤이어 또 한번 돌아왔다. 그리고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주인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는 그 곰보다 더 좋은 친구예요.”

노인은 얼어붙었다. 그는 나무진 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그녀를 응시했고 그의 얼굴은 갑자기 산호 파이프처럼 굳어졌다. “너 곰... 이라고 했니?”

순순히, 그녀는 끄덕였다.

그의 눈이 빛났다. “너 숲으로 들어갔었던 거니? 내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얘야, 사실대로 말해!”

“네, 그런데 그냥...”

“변명은 필요 없어!” 그는 손으로 배를 광 쳤다. “거짓말 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수천 번 얘기했잖아. 너는 언젠가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나무에서 네 시체를 찾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뇨, 아녜요.” 그녀는 목구멍에서 울음이 차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조용해!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넌 나까지 죽게 만들 거야.” 그는 모래를 한웅큼 잡아 그녀에게 던졌다. “자 네가 있던 데로 돌아가!”

안나는 흐느끼면서 휘청거리며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쳤다. 모든 걸!

그녀는 문을 광하고 세계 달았다. 오두막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듯했다.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없기 때문이다.

친구를 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 주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녀는 이제 주인은 정말 결코 그녀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손을 짝 쥐고 두 볼을 닦았다. “그 꿈을 다시 찾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그래, 어디든 가서 찾을 거야! 공터로 돌아가서. 아니면 나무들 너머에서라도. 아니면…”

그녀는 어깨 위로 열린 창문을 쳐다봤다. “높은 버드나무라도.”

7장

주인은 배의 일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며칠을 집에 머물렀다. 종종 철썩거리는 바다에 툭툭대기는 했지만, 안나에게는 요만큼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섭게 지켜봤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갈매기와 가마우지들이 떠오르는 태양에 소리치던 아침, 그는 다시 바다로 갔다. 안나는 그가 모든 장비를 실을 때 배를 계속 잡아주면서 그를 도울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샌들은 여전히 잃어버려 없고 얇은 물에는 성계가 많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돕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쳐다보았고, 그가 배를 밀며 나갈 때 그녀의 발은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글의 발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들어, 얘야.” 노인은 그녀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저 숲에 들어가지 마라! 알겠지?”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노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노를 저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몇 분 후, 수평선 너머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해변을 성큼성큼 걸어 숲의 가장 자리에 있는 한 줄로 늘어선 검은딸기나무를 향해 갔다.

“돌아올게, 오랜 친구야. 걱정 마.”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할 때 목구멍에 이상한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검은 딸기나무들을 향해 그리고 숲 속으로 걸음을 디뎠다. 여기서 그녀의 두 발이 마른 바늘잎을 밟아 오도독 소리를 냈고 저기서 부드러운 이끼에 빠졌다. “오, 이글, 냄새 봐! 여기는 아주 다른걸.”

새는 경호하는 병사처럼 그녀의 어깨 위에 서서 발로 그녀의 살갓을 짹 쥐었다.

하지만, 새로운 냄새는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그들 위를 흘러갔다. 공기는 매섭고 달콤하고 갑자기 귀퀴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나뭇잎들과 나란히 나뭇가지들 위에서 춤을 췄다. 안나는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주인의 경고들을 잊을

수 없었다.

경계태세.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 경계와 조심.

그녀는 그때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숲이 전보다 더 조용해진 듯했다. 나뭇가지들은 바스락거리지 않았고, 다람쥐들은 재잘거리지 않았다. 새들은 그녀의 어깨 위에 앉은 참새에게 지저귀지 않았다. 또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볼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뭐지, 이글? 느껴지니?”

새는 불안 속에 몸의 무게중심을 바꿨다.

마침내, 그들은 빈터에 다다랐다. 거대한 너도밤나무가 있었다. 꽃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다.

그녀는 구부러진 소나무 아래서 잠시 멈췄다. 그 꿈을 기다리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저기 너도밤나무의 굴 속?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새끼 꿈이 빈터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꿈을 찾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숲 속으로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준비가 안됐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

툭! 솔방울이 그녀의 머리 위에 떨어져 보닛의 챙을 스쳤다.

이글이 그 나무를 향해 짹하고 소리를 질렀고 안나는 두꺼운 나뭇가지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솔방울을 주워 손으로 들어올렸다. “오래된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환영해,” 그녀는 새에게 말했다. “아마 벌의 사촌쯤 될 거야.”

이글은 화난 듯이 짹짹거렸다.

그녀는 빈터로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툭! 하고 또 다른 솔방울이 떨어졌다. 이번 것은 그녀의 등 가운데를 쳤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착한 나무가 아닌데.”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던지기 놀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첫 번째 솔방울을 잡고서 그녀는 나뭇가지로 할 수 있는 한 세계 던져 올렸다. 그것은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솔잎 사이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쉽게 잡을 만큼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그녀는 그것을 나무 위로 던졌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이번에 솔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환하게 씩 웃었다. “잘 잡았어! 어쨌든 언젠가 우리 다시 놀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다시 거대한 너도밤나무와 빈터 너머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더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녀의 코를 바로 지나쳐서 또 하나의 물체가 위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허공에 솔잎들을 뿌리면서 그녀의 발을 탁 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안나는 겁에 질려 쳐다봤다. 그것은 솔방울이 아니었다. 그건 잃어버린 그녀의 샌들이었다!

그녀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기 전에, 다른 한쪽 샌들이 나뭇가지에서부터 첫 번째 샌들 바로 옆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위로 치켜들면서 몸을 뒤로 급히 뺐다. 그때, 나뭇가지 덮개에서 물을 튀기는 개울처럼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녀가 전에 들어본 적 있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지!” 그녀가 외쳤다.

이에 응답으로, 모래 색 곰이 가지에서 경충 뛰어내렸다. 그는 솔잎 세례를 받으며 그녀의 머리 위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다리를 가지에 걸고, 거꾸로 몸을 흔들었다. 그의 귀는 아래로 흔들흔들 거리고 까만 코는 그녀의 코와 매우 가까이 닿은 채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조개가 껍데기에 붙어 있는 것만큼 가까웠다!

곰은 그녀의 얼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안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얼마나 반짝이는지! 사나웠다. 그리고 뭔가 마법에 나오는 듯했다.

숨죽이고 있는 순간, 그들은 서로 바라보았다. 그때 안나는 말이 튀어나왔다. 곰이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음... 안녕. 내 이름은 로완나야.”

곰은 털이 수북한 이마를 찡그렸지만 그녀를 계속 응시했다.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새로운 종류의 소리를 냈다. “하샤라샤 낮 사샤라쉬,” 그는 획 하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처럼 소리를 내며 말을 했다.

안나는 놀라서 눈을 깜박거렸다. 그녀는 이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해했다.

“사샤라쉬,” 그녀가 따라했다. “네 이름은 사샤라쉬구나.”

곰은 장난스럽게 그녀를 발로 건드렸다. 그리고는 그가 그녀의 어깨위의 깃이 구겨진 새를 가리키면서 또 다른 말을 획 하고 내뱉었다.

“오, 그건 우리 이글이야. 언젠가는 날겠지만 지금은 나랑 같이 다녀.”

여기서, 곰은 다시 물결을 일으키는 웃음소리를 냈다. “로마라샤 루!”

이글은 경계하는 휘파람 소리를 던지며 거꾸로 달린 새끼 곰을 노려봤다.

사샤라쉬는 나뭇가지를 앞발로 움켜잡고 몸을 흔들며 똑바로 세웠다. 그는 네 발을 바꿔가며 나뭇가지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너도밤나무를 바라보면서 멈췄다. 그는 어깨를 구부렸다. 갑자기, 소나무에서 공중으로 뛰었다.

안나는 움찔하고 놀랐고 곰이 바닥에 부딪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 그는 거대한 너도밤나무에 안전하게 땅에 내려와 은빛 나뭇가지들을 발로 움켜잡고 있었다. 그가 위 아래로 튕길 때 나뭇잎들은 쏟아져 내렸다. 이제 안나가 웃을 차례다!

그녀는 그와 함께 하려고 달려갔다. “같이 오르자!”

너도밤나무에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돌에 발을 접질렸다. 그녀는 넘어졌고 나무 몸통에 세계 부딪쳤다. 이글은 비명을 지르고 그녀 옆 이끼 멍치에 자빠졌다.

안나는 일어나 앉았고 멍했다. 곰이 그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허공에 발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다, “마샤, 마샤말라 쇼?”

“꽤…괜찮아,”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내 다리가…”

그녀는 허벅지의 깊은 상처를 보면서 멈칫했다. 부러진 나뭇가지의 뾰족한 끝에 벤 것이다! 그녀의 살갓에서 피가 줄줄 흘러 이끼 위로 흘러나왔다. 전에 그렇게 심하게 베인 적이 없었다. 전혀! 그리고 그 많은 피… 갑자기 그녀는 어지러워 나무 몸통에 기댔다.

사샤라쉬는 돌아서 멀리 빈터 가에 있는 검은오리나무 묘목으로 뛰어갔다. 그는 잔가지 하나를 물고 두 발로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이빨을 이용해, 열매 하나를 벗기듯 나무껍질을 솜씨 좋게 벗겨냈다. 그는 잘게 조각난 껍질을 몇 초간 씹고 난 후 너도밤나무로 뛰어왔다.

한편 안나는 피를 멈추려 애를 쓰고 있었다. 벌어진 상처를 세계 놀렸지만 소용 없었다. 이제 피가 다리뿐 아니라 손도 적셨다! 곰이 도착하자,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에 일그러져있었다.

부드럽게, 그는 코로 그녀의 손을 밀쳤다. 그는 거친 속삭임에 가깝게 낮게 으르렁댔다. 그리고는 그는 혀를 이용해, 검은오리나무 껍질을 상처에 덮었다.

거의 동시에, 출혈이 멈췄다. 이글은 그녀의 다리 가까이서 뛰어다니며 놀라움에

썩썩거렸다.

그녀는 고르지 않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몸이 조금 풀렸다. 이번에는 살짝 떨리는 미소와 함께 꿈을 다시 봤다.

새끼 곰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사나움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그의 눈에서 보았다. 마법도 아닌. 우정이 느껴졌다.

8장

안나에게 곰과 뛰어노는 것이 이글이나 올드별과 노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사샤라쉬와 있을 때 그녀는 나무를 오를 때처럼 열심이었다. 아니면 바닷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물을 튀길 때. 아니면 즙이 많은 탐스런 라스베리를 잔뜩 먹을 때 같았다.

여름에 이르자 낮이 공터에 골든그라스처럼 길어졌다. 그리고 그 낮 동안, 안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먼저, 매일 아침, 그녀는 집안일을 끝내기 위해 이리저리 허둥댔다. 그녀는 야채를 다듬고, 낡은 도끼의 날을 갈고, 딸감을 더 쪄내고, 목탄을 쌓아놓고, 켈프 비스킷과 순무 케이크, 아니면 저녁식사로 그녀가 생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섞었다.

점점 더, 그녀는 주인을 흡족케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야 해, 이글,” 그녀가 어깨 위에 앉은 새에게 말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거야.”

드디어 마지막 집안일이 다 됐을 때, 그녀는 새끼 곰을 만나 오후 내내 뛰어놀곤 했다. 함께 그들은 오두막집 근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오르고, 얇은 물을 건너고, 불가사리 탐을 쌓고, 머리 위로 높이 움직이는 구름 흉내를 내고, 해안가를 따라 은신처를 다 찾았다.

한번은 사샤라쉬가 해변을 가로질러 숲으로부터 개울물이 솟구쳐 나오는 장소로 그녀를 데려왔다. 그때, 매우 오랜 동안, 그는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거북이처럼 고요히 개울가에 가장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거북이도 아니고 그건 바위도 아니었다.

안나는 안달이 났다. “이런, 새시! 뭐하는 거야?”

곰은 대답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콧등을 기어 다니는 파리를 핏지도 않았다.

갑자기 그가 획 움직였다. 그는 발로 물을 탁 때리고 개울에서 안나의 팔뚝만큼 큰 민물고기를 때려잡았다. 물고기는 독에서 물과 진흙을 곰에게 온통 튀기면서 찰싹거렸다. 하지만 그는 신이 나 으르렁거렸다. 완벽한 점심이다!

안나는 그가 물고기를 처음 크게 베어 먹는 것을 지켜봤다. 곰은 꼬리를 찢고

그녀에게 던졌다.

“어, 고맙지만 됐어,” 그녀가 말했다. “난 생선을 요리한 게 좋아.”

곰은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그리고는 다시 식사를 했다.

매일 하루의 끝에, 그들의 놀이는 안나가 주인의 저녁식사를 챙기러 갈 시간에 항상 멈췄다. 사샤라쉬가 말을 안 듣고 으르렁 거리거나 발을 쿵쿵 구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항상 그녀를 가게 했다. 그녀는 해변 가를 달려 노인이 발견하지 않도록 곰 발자국을 다 지우는 등 할 일이 많다.

확실히 때때로 주인의 배가 도착하기 전에 매우 빨리 일을 해야 했다. 분명 그녀는 이제 별을 오르는 시간이 거의 없고 높은 버드나무를 얼핏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단 그녀는 친구가 생겼다.

그녀는 주인에게 감히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다. 또는 행복한 기분을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이해 못할 테니까! 게다가, 여름에 낮이 길어진 탓에 그는 고기를 잡으러 늦게까지 밖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가 매일 저녁 그녀를 유심히 관찰할 동안 그녀는 그가 뭔가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는 너무 피곤해 끽끔거리거나 툭툭대는 것 외에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었고 안나와 곰은 공터 근처서 쉬고 있었다. 그녀는 박하의 잔가지를 씹으며 바위에 기대어 오렌지 빛 이끼를 튀겼다. “나 이제 네 말을 꽤 잘 이해하고 있어, 새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곰은 바위 위에 누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 위에 대고 굵느라 너무 바빴다. 그는 털로 덮인 큰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몸을 비틀었다.

“그렇지 않아?” 그녀가 다시 말했다.

곰은 좀 더 꿈틀거리고는 한발로 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참새의 꼬지 깃털을 간질였다. 이글은 소리를 지르고 건강한 날개를 퍼덕거렸다.

안나는 다시 말했다. “자 이제, 대답해줘.”

결국 곰이 답했다. 언제나, 그는 낮고 획 지나가는 투로 말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 안나는 어떻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했다.

“음, 넌 빨리 배웠어.” 그는 가슴을 대고 구른 후 흰 나방에게 몸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내가 널 숲으로 더 깊숙이 데려가게 해줘야

해! 거긴 할 게 더 많아. 또 먹을 것도 더 많아.”

안나의 박하 잎이 맛을 잃었다. 그녀는 그것을 땅에 뺐었다.

“오, 새시… 너 쉽게 말한다.”

“쉬우니까.”

“아냐, 안 쉬워! 난 그걸 영원토록 바라왔어. 숲 바로 반대편으로 가서 산마루를 오르려고. 높은 버드나무로 가는 길을 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주인이 나를 거기서 발견했다고 말했었나?”

곰은 짜증에 가까운 으르렁 소리를 냈다. “세 번째야 벌써.”

“바로 저기 뿌리들 틈에서,” 그녀는 꿈을 꾸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음, 언젠가 난 다시 돌아갈 거야.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내가 켈 원하는 거야, 새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이야.”

곰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렇게 신경 쓰니? 그곳은 장소일 뿐이야.”

“오, 아냐!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어. 거긴 내 집이야, 내 출발점이라고. 거기 가서 보면 나를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누군지.”

그가 코웃음을 쳤다. “넌 그걸 이미 모르니?”

“몰라.” 그녀의 눈이 흐려졌다. “난 몰라.”

혀로 그는 코 바로 끝을 핥았다. “네가 저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 넌 절대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안나가 너무 빨리 일어나 앉는 바람에 참새는 그녀의 어깨에서 거의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새시는 바위 옆에 고스베리 덤불로 손을 뻗었다. 그는 집중하며 으르렁거리곤 조심스럽게 겨냥하고 통통한 산딸기 하나를 줄기에서 쳐냈다. 그 산딸기는 공중으로 높이 날았다. 하지만 곰은 몸을 돌려 혀로 그 날아가는 먹이를 제때 잡으려고 턱을 벌렸다. 그는 산딸기를 삼키고 입을 꾹꾹거렸다.

“말해줘,” 안나가 자기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말했다.

“뭘 말해줘?”

“나쁜 애야, 새시! 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왜 말한 거야!”

곰은 그녀를 험악하게 쳐다봤다. “숲으로 더 깊이 데려갈 수 없는데 어떻게 높

은 버드나무에 갈 수 있겠어?”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모르겠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빈터 너머에 숲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오래된 너도밤나무도 곁으로는 친근하지만 무언가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게… 유령들 말이야. 난 만날 준비가 안됐어.”

“왜 속삭이는데?”

그녀는 입술만 깨물었다.

새시는 발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안나, 내 말 들어봐! 숲 유령들은 없어.”

그녀가 비웃었다. “농담하는 거지.”

“내가? 농담한다고?” 꿈은 혀로 가장 긴 발톱을 말아보려 온통 정신을 팔렸다. 갑자기 그가 자기 발톱에 찢려서 비명을 지르고 몇 초간 열심히 혀를 흔들었다. 그리고 안나에게 몸을 돌렸다. “난 농담 같은 거 안 해.”

그녀는 그를 향해 실실 웃었다.

“그게 아니야, 아무튼.” 그는 크게 으르렁거렸다. “유령은 여기 없어. 그냥 나무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난 들은 적이 있어! 많이.”

새시는 새끼 곰이라기보다는 야생의 곰답게 코웃음을 쳤다. “누구한테? 비열한 얼굴의 주인아저씨한테서?”

“자, 그래.” 안나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저씨 얼굴이 오래된 신무처럼 생기긴 했어. 인정해.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셔.”

“음 그럼, 그는 머리에 따개비가 들었나봐. 네가 그 말을 듣는 걸 보니 너도 그럴고.” 햇살에 그의 털은 잔물결을 만들었고 그는 바위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자, 내가 증명해 줄게.”

그의 어깨는 긴장하고 눈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그는 주변 나무들을 관찰했다. 갑자기 그는 번개 때문에 죽은 나무의 곳곳한 몸통을 보고서는 반갑게 으르렁댔다.

안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분명 저 오래된 나무에 오르지는 않겠지! 미끄럽고 매끈한 몸통은 나무껍질이나 가지가 없었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게다가, 저게 유령들과 무슨 상관이람?

느닷없이, 꿈은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다리로 까맣게 탄 나무 몸통을 감싸고 위

로 오르기 시작했다. 앞발톱으로 나무를 찍으면서 뒷다리는 그의 무게를 지탱할 용이를 더듬으며 올라갔다. 조금씩, 그는 더 높이 움직였다.

“이런… 새시! 뭐하는 거야?”

그는 계속해 올랐다. 그가 땅에서 안나의 키보다 두 배 이상 되는 나무의 반 정도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 뭉툭한 나뭇가지 토막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앞발로 그것을 잡자마자 그 나무토막은 부러졌다. 새시는 잡던 것을 놓치고 발톱은 나무 몸통을 긁어내며 아래로 대부분을 미끄러졌다.

사나운 포효와 함께 그는 다시 시작했다. 전보다 더 빨랐다! 그가 부러진 나무토막 부분을 지나갈 때쯤 나무 부스러기가 그의 코에 점을 찍으며 귀에 달라붙었다. 어깨 근육은 무리해서 떨렸다.

안나는 그와 같이 심장을 두근대며 지켜봤다. 웬일인지 그는 털로 덮인 곰이라기보다 그녀와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거의 소년의 모습 같았다. ‘네가 뭘 하든, 새시, 떨어지지 마. 제발 떨어지지는 말라고.’

더 높이 그는 더 높이 올랐다. 이제 그는 안나의 키보다 네 배 정도에 다다랐다. 그녀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몇 개의 산딸기를 언뜻 보았다. 일리베리 다발인데 무르익었고 둥글었다. 저게 목적이었나?

이제 꼭대기가 거의 손에 닿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끌어당기며 그의 발은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가 속안으로 손을 뻗었으니 나무 몸통은 텅 비었을 것이다. 드디어, 그는 꼭대기로 몸을 끌어당겨 등을 세우고 승리의 포효를 했다.

물론, 새시는 한 움큼 산딸기를 잡고 입에 쑤셔 넣었다. 노란 즙이 털복숭이 목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는 뒷다리로 바로 서서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제 조심해,” 안나가 그를 향해 외쳤다. “떨어지면 산딸기들처럼 으스러진다고.”

새끼 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테두리에서 뛰기 시작했다. “여기 봐, 유령들아!” 그가 소리쳤다. “잡을 수 있으면 날 잡아봐!”

안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걱정스럽게, 그녀는 빈터 너머에 어두운 나뭇가지들을 들여다보았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새시.”

곰은 듣지 않는 듯했다. “이것 봐, 한심한 유령들아! 내 최신 댄스 스텝이야.”

그는 한쪽 발로 균형을 잡고서 한 다리를 바깥으로 찼다. 안나는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순간 그는 공중으로 튀었고 한 바퀴를 돌았다. 그는 모래 색 형체만 보이게 몸을 빙빙 돌렸다. 그는 사납게 외치며 다시 테두리에 안전하게 땅에 닿았다.

갑자기, 그의 발밑에서 나무 부스러기가 부서졌다. 새시의 외침은 비명소리로 바뀌었다. 그가 뒤로 넘어지면서 발톱은 허공을 긁어댔고 텅 빈 나무 몸통 속으로 바로 떨어졌다.

외치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이번은 소리가 약해졌다. 그리고 나무 전체를 흔드는 쿵하는 소리가 강하게 들렸다. 그리곤 조용했다.

9장

안나는 펼쩍 뛰었다. 그녀는 꿈이 사라진 나무로 달려갔다. 바람이 휘몰아쳐 주변 나무들이 흔들거리고 나뭇잎과 솔방울들을 땅에 뿌렸다. 고스베리 덤불은 폭풍 속에 날리는 씨앗 무더기처럼 덜그럭 거렸다.

“새시!” 그녀는 번개에 맞아 새까맣게 탄 나무를 주먹으로 쳤다. “다쳤니?”

대답이 없었다.

“새시! 내 말이 들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안나는 빈터 너머 어두운 숲으로 몸을 돌렸다. 저기에 유령들이 안 보이게 숨어 있었던 걸까? 그들이 새시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녀는 팔로 이마를 닦고 나무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옹이구멍에 귀를 대고 들었다. 이글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 앞뒤로 서성댔다. 그때, 나무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새시!” 그녀는 옹이구멍 안으로 소리쳤다. “말해!”

“댄스 스텝을… 좀,” 약하게 대답이 들렸다. “더 연습할… 필요가 있나봐.”

“그 소린 집어 치워. 미친 곰아! 올라올 수 있겠어?”

“아, 아니. 못해.” 그가 몸을 돌리며 신음했다. “벽이 너무 미끄러워. 아아아. 내 다리가…”

그녀는 영킨 뿌리들 틈에 발을 받치고 나무 몸통을 세계 밀었다. 어깨는 납작해지고 다리는 힘을 너무 쥐 후들거렸다. 그녀가 그렇게 큰 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조금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가 기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온 힘을 다해, 그녀는 밀어냈다. 하지만 나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오,” 낮은 탄식소리가 났다. “힘들어, 안나. 정말 힘들어.”

“뭐가, 네 다리?”

“아니, 내 배! 배고파졌어… 잠깐 사이에. 너 산딸기 좀 던져줄 수 있겠어?”

그녀는 그가 웃기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생생한 고통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한번만 배고픔을 잊어봐!” 그녀가 옹이구멍을 노려봤다.

“너를 꺼내줄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해.”

그녀는 자신의 마른 입술을 핥았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그녀는 그 나무 몸통을 오를 수 없었다. 게다가, 나무를 오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유령들은?

빈터를 훑어보면서 그녀는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아무것이라도 찾아봤다. 운이 안 따라줬다! 보이는 것이라곤 나뭇잎들, 나뭇가지들, 고사리줄기들이었다. 그때 그녀가 어린나무 가지를 동그랗게 말고 있는 얇은 보라색 덩굴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돌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듯 생각이 떠올랐다. 어찌면... 그녀가 충분히 달을 만큼 긴 덩굴을 떨어뜨려줄 수만 있다면 그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큰 덩굴을 찾을까? 단단하기도 한 것을? 그녀는 이마를 탁 쳤다. 주인이 그물로 사용하는 덩굴들이 있지!

나무속에서 친구는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이번엔 소리가 더 컸다.

“돌아올게, 새시,” 그녀가 외쳤다. “금방이야.” 그녀는 이글을 나무뿌리들 위로 올려놓았다. “자, 여기 머물러. 새시와 함께 있어.”

그녀는 해안과 경계를 이룬 검은딸기나무들을 뚫고 오두막집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거칠게 숨을 쉬면서 그녀는 해변에 놓인 낡은 그물들을 살폈다. 하지만 그것들은 뒤엉킨 덩굴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밧줄처럼 긴 것이 필요했다. 그래, 주인이...

그녀는 굳어졌다. 주인이 숲에서 모은 것들처럼. 그녀는 주인이 말해준대로 새시가 민물고기를 잡았던 그 개울 위 어디쯤에서 그것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숲으로 실개천을 따라 얼마나 멀리 개울 위로 갔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숲 깊숙한 곳이라.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유령들이 있든 말든, 그녀는 갈 것이다!

안나는 개울이 바다로 흐르는 깊이 팬 장소를 향해 해안가를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둑 가장자리 부근에서 숲으로 방향을 틀었다. 팔과 다리로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리고 발로 진흙을 차며 개울가를 달렸다.

숲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뻘뻘해졌다. 나무들은 강둑에 더 근접하게 가득 매웠는데 발톱 같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물보라를 방울방울 흘려내렸다. 이끼가 어디에든 있어 축축하고 두툼했다. 매우 두툼해서 때로는 그녀가

개울을 직접 건너가야 했다. 젠장, 차가웠다! 얼음처럼 찬 물이 그녀의 다리에 찰싹거리며 그녀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녀의 발이 물속 돌 위에 미끄러지자 어둡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넘어질 뻔했다.

소리가 들렸다! 물이 그녀의 발 주위에서 소용돌이칠 때 그녀는 소리를 들으려 멈춰 섰다. 높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미줄보다 얇은 소리였다.

소리는 더 커지고 가까워지고 바람과 함께 더 높아졌다. 그리고는 더 많은 소리가 가세했다. 비명소리, 울부짖음, 신음소리. 전부 숲속 바람에서 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안나는 몸을 떨었고 개울 위로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녀의 발가락은 추위로 마비된 듯 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숲속 깊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바위의 가파른 벽이 강둑에서 올라가는 곳에 다다랐다. 아주 작은 실개천이 절벽에서 쏟아져 내려 개울에 떨어졌다. 덩굴들은 길고 꼬여있었는데 축 늘어진 녹색 머리칼처럼 한 다스씩 매달려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망설였다. 유령들이 그녀를 막으면 어떡하지? 주인이 덩굴을 가지러 여기 왔을 때도 유령들이 공격을 했었을까? 그녀는 지금 도끼를 가져올 생각을 했더라면 하고 바랐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절벽 바닥을 걸어갔다. 그리고는 가장 긴 덩굴 하나를 향해 손을 뻗어 손목에 덩굴을 감아 잡아당겼다. 그것은 바위에 붙은 굴처럼 굳게 버텼다.

“이리와, 이제!” 그녀가 명령조로 말했다. “난 네가 필요해. 새시는 네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돌이 많은 개울 바닥에 발로 버티고 서서 뒤로 몸을 젖히고선 다시 잡아당겼다. 갑자기 그 덩굴은 험겁게 빠졌다. 그녀는 개울에 텀벙 자빠졌다.

그녀가 일어서자 레깅스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녀는 덩굴을 끌어 모아 고리모양으로 휘감고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전보다 더 맹렬한 새로운 바람이 숲에 휘몰아쳤다. 나뭇가지들은 삐걱거리고 신음소리를 냈고 나무들은 사방에 흔들거렸다. 장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그녀 바로 옆 물속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그녀는 얼굴은 아닌 형체를 흘끗 봤다. 뿌리들의 웅이처럼 뒤틀린 것이

오크나무 뒤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안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귀신같은 밤처럼 어두운 눈으로 그 얼굴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우둘투둘한 이빨을 들어 낸 입같이 생긴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개울을 뛰어 내려와 해변으로, 마침내 빈터로 달렸다. 그녀가 드디어 나무에 다다랐을 때, 목이 쉬어 숨을 헐떡이며 휘청거렸다. 이 글은 크게 반기면서 짹짹거렸다. 그녀는 덩굴을 던지고 옹이구멍에 입을 가져갔다.

“나 돌아왔어, 새시.”

낮은 신음소리가 나무속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그녀가 본 것을 그에게 말하려다 멈췄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안나는 덩굴을 움켜잡고 한쪽 끝에 돌을 묶었다. 발을 디디고, 그녀는 나무 테두리 쪽으로 덩굴을 던져 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는 얼어붙었다. 덩굴이 충분히 길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나무 몸통을 다 내려와도 새시에게 닿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전에 아주 잠깐 앉아 있었던 이끼가 덮인 바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거긴 뭘지도 모른다!

급히 그녀는 바위를 올랐다. 그녀는 묶지 않은 덩굴 끝을 허리에 묶었다. 그리고는 무거운 끝자락을 손에 들어 목표를 가늠했다. 마침내 그녀는 나무 꼭대기로 덩굴을 던졌다. 그것은 나무부스러기를 뿌리며 옆을 벗어나 놓쳤다.

그녀는 덩굴을 주워 모아 다시 던졌다. 이번에는, 끝자락에 돌맹이가 테두리를 때리고 노란 산딸기들을 몇 개 떨어뜨렸다. 하지만 덩굴의 무게가 뒤로 잡아당겼다. 찰싹 그것은 땅을 쳤다.

“이런 쟀장!” 그녀는 바위 위에서 발을 내리쳤다. 한 번 더 덩굴을 잡고 그녀는 큰 숨을 들이마시고 뒤로 몸을 젖혀 던졌다. 그녀는 그 덩굴이 위로 날아 테두리를 치고 미끈미끈한 뱀처럼 구멍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녀가 해냈다!

“붙잡아!” 그녀는 소리쳤다. “그리고 올라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녀는 덩굴의 아랫부분을 흔들었다. “그걸 잡아!”

몇 초가 지났다. 그리고 또 몇 초가 흘렀다.

갑자기 덩굴이 핵 움직였다. 그리고 덩굴이 팽팽해졌다. 다시 또 다시 팽팽해졌

다. 그가 올라온다!

안나는 자신의 무게를 가해 움켜잡고 아래로 당겼다. 덩굴아, 끊어지지 마. 제발 끊어지지 마.

드디어, 그녀는 나무 테두리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발견했다. 새시! 빈 나무 몸통에서 무언가 나왔고 모서리를 잡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발이 아니었다. 다른 누구의 발도 아니었다.

그건 손이었다.

10장

잠시 후, 나무 테두리를 잡고 있던 손이 곰의 발로 변했다.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안나는 바위에서 쳐다보다 놀라서 눈을 깜박거렸다. 그녀는 나뭇가지들을 통과하며 갈라진 희미한 빛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그 발로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눈을 깜박였다. 빛의 속임수일거야.

발에 이어, 털이 덩수룩한 곰이 속이 빈 나무 몸통에서 나왔다. 새시는 거미줄, 먼지, 나무 부스러기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왼쪽 뒷발을 꺼내자, 그것은 뒤틀리고 부어보였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안나가 크게 웃을 때 그는 나무 테두리에 달린 노란 일리베리에 코를 박고는 크게 한번 베어 물었다.

새끼 곰은 열매들을 한 번에 삼켰다. 일리베리 즙이 입가에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안나에게 손을 흔들고는 거칠게 숨을 쉬며 테두리에 앉아 쉬었다.

마침내 그는 꿈틀거리며 아래로 나무 꼭대기를 뒷다리로 감쌌다. 그리고는 발이 부었지만, 나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발톱이 나무를 긁자 끼익 소리를 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땅에 닿았다.

안나는 바위에서 뛰어 내려서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는 털이 복슬복슬한 가슴에서 나무껍질들을 털어내고 환하게 빛나는 녹색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안나.”

“오,” 그녀는 태연히 대답했다. “나는 어떤 늙은 곰에게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감히 유령들에게 도전할 정도로 미친 곰이라도.”

그는 그녀가 전에 아주 여러 번 들었던 잔잔히 퍼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좀 더 가벼워져서 웬지, 더 높은 목소리였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변 나무들로 울려 퍼져서 나뭇가지들은 바스락거리고 딱딱 소리를 냈다.

“여긴 어때?” 그녀는 다친 다리에서 거미줄을 당겨냈다.

곰은 다리를 뺀고 촌촌한 이끼 속으로 발을 담겼다. “조금 쉬면 돼, 그 뿐이야.”

“쉽지 않을 텐데.”

이글은 나무의 뿌리위로 가까이 뛰어가며 맛장구치듯 짹짹거렸다.

어린 곰은 안나에게 코를 밀었다. “그래,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항상 그래왔고.”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바로 지금… 까지.”

그는 그녀의 얼굴 쪽으로 앞발을 뻗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볼을 만지자 발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꼈다. “넌 제멋대로야, 알겠지만,” 그가 목소리를 다시 높이며 말했다. “하지만 친구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야.”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그녀의 흐린 눈에, 그가 곰이라기보다 모래색 털을 가진 소년으로 보였다. 그녀를 친구라고 부른 소년.

그녀는 볼에 얹힌 그의 발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발이 아니라 손이었다. 그녀의 손처럼 손가락이 있는 손.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앞으로 당겼다. 세계, 깜박이며 눈을 닦아보려 애를 썼다. 조용했었다. 그녀 앞에 있는 곰의 새끼는 이제 진짜 소년이었다.

그는 호두 갈색 피부에 걸친 것이 거의 없었다. 나무껍질 조각으로 엮어 만든 험거운 레깅스와 한쪽 손목에 두른, 주홍색 나뭇잎으로 만든 밴드뿐이었다. 별거벗은 가슴과 팔에는 수십 개의 굵은 상처들, 멍, 흉터들이 있었다. 그의 모래색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지만 털은 모두 사라졌다. 숲처럼 푸르고 사납고 마법 같은 그의 눈동자만이 변하지 않았다.

그 소년은 그녀를 바라봤고 두 눈에서 신비한 빛을 띠었다. “그래 뭐가 보이니?”

“남자 아이! 너는 소년이구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난 여전히 새시야,” 그는 차분히 말했다.

안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근데 넌 정말 누구야?”

이글은 건강한 날개로 대답하라고 보채듯이 소년의 무릎을 툭툭 쳤다.

새시의 눈동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생각해봐.”

“그냥 말해줘!”

“안 돼, 생각해봐.” 그는 새끼 곰같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지만 소년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쉬었다. “좋아… 넌 곰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 맞아.” 그는 풀밭에 떨어진 일리베리를 따서

톡 튀겨서 혀로 날름 잡았다. “하지만 곰들이 먹는 방식을 좋아하지.”

“그리고 먹고 또 먹고.”

“바로 다시.” 그가 팔짱을 꼈다. “자, 얼른. 나는 네가 알아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잘할 수 있지?”

그녀는 곰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렸다. “음, 나는 모르겠어. 넌 곰이 아니고 평범한 소년도 아니야. 그래, 그건 분명해! 그럼 넌 뭐지?”

그는 그저 계속 웃기만 했다.

안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오, 얼른. 최소한 힌트는 줘.”

새시는 입술을 오므렸다. “좋아, 좋아. 내 생각에 너는 내가, 음… 올드별과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올드별?”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너도 밤나무 뒤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공터 옆에 나와 있고. 너는 나만큼 가깝지 않잖아.”

“그런 게 아니야, 안나.” 그의 눈이 빛났다. “영혼이 가깝다고.”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입은 굴처럼 넓게 벌어졌다. “그 뜻은 아니겠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지…”

그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뭐?”

그녀는 길고 느리게 한숨을 쉬었다. “네가 정말…”

“맞아! 나무의 영혼.”

그녀는 어안이 병병하여 서있었다.

“우리는 드러말로라고 해.” 그는 다친 다리를 구부리다 움찔하여 다시 이끼 위로 내렸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무 유령이라고 하지.”

안나는 갑자기 떨렸다. 그녀는 앉아서 텅 빈 나무등치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무 유령들은 무섭고 못생겼잖아.” 그녀는 어깨 너머로 힐끗 그를 봤다. “내가 나무 유령을 한번 봤어, 새시. 숲 깊은데서. 엄청 무서운 얼굴이었어.”

새시는 손을 얼굴로 가져가서 입가를 당겼다. 그는 눈을 사시로 뜨고 혀를 흔들었다. 그리고 으르렁대다가 코웃음을 치다가 딸꾹질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지해. 그 유령들은 죽일 수도 있다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말했니? 유령은 없어. 그냥 드러머로야, 나 같은.”

그녀는 녹갈색 눈동자에 의심이 가득한 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새시는 그녀의 무릎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잘 모를 수도 있지, 너도 알다시피. 난 더 똑똑한 두더지들을 만난 적이 있어.”

“이제 말해, 불공평해! 난 너희 언어를 배웠어 그렇지 않아? 정말 물개가 파도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빠르게.”

“하! 올빼미가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빠르다고 말하는 거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다.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안나, 날 믿어. 사실이야.”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이제 왜 네가 말할 때 나뭇가지들이 확확 거리는 소리같이 들렸는지 알겠어.”

그는 그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 그래, 훨씬 더 많이.”

“잠깐 기다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너는 무섭지 않은 지야. 넌 무서워야 하는데.”

그는 히죽 웃었다. “난 엄마는 가끔 무서워.”

“아니, 아니. 농담하는 게 아냐! 나무 영혼들은 정말... 음, 유령들이 아냐?”

새시는 나무에 등을 대고 바로 세웠다. “네가 그럴 거라 바라면.”

“네 말은...”

“아! 모르겠어, 안나? 그건 드러머로의 특별한 기술이야. 우린 네가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 새끼 곰이나 소년처럼.”

“아님 유령처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애를 쓰며 입술을 오므렸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신선한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사방으로 흔들며 숲으로 휘몰아쳤다. 나뭇잎들과 잔가지들 그리고 꽃잎들이 꿀같이 달콤한 공기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잠시 그들은 가

지들의 획획 거리는 소리와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새시는 손을 뺐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거야. 이런 식이야, 새끼 곰이든 그 새끼들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든, 그게 내가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야. 네가 못생긴 늙은 유령을 기대하고 있다면 음, 그게 네가 보게 될 모습이야.”

그녀는 숲에서 그녀가 본 흉측한 얼굴을 생각하곤 가슴이 요동쳤다. “이건 정말 모두 믿기 어려워.”

“물론, 우린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뿌리째 뽑혀 있을 때만.”

“뿌리째 뽑힌다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우리의 원래 나무 밖으로.” 그는 이끼 위에서 다리를 풀었다. “나, 나는 산사나무 숲에서 태어났어. 숲 맨 끝에, 네가 말했던 늙은 버드나무 근처에서.”

안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났다. “그 높은 버드나무? 네가 거기 있었어?”

“그 뿌리들 위에서 자라고 춤췄지! 거기다 그 나뭇가지에서 흔들어대기도 했지.” 그는 싱긋 웃었다. “거기서 폭풍우도 견뎠지. 엄청나게 휘몰아치던 폭풍이었어! 나와 내 가족 모두 바다로 날려버릴 정도였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너는 가족이 많지. 다섯이나 여섯의 산사나무 형제자매들?”

“다섯이나 여섯!” 그가 고함쳤다. “아니, 난 수천 가족을 가졌어! 네가 드러낼로면 숲 전체가 너의 가족이야.”

안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무 정령이 되는 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이 다르게 들렸다. 그녀가 들었던 것보다도. 놀랍다! 아마 주인은 오해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그녀는 울퉁불퉁한 뿌리들로 가까이 미끄러져갔다. “새시, 넌 뭘가에 대해 진실을 내게 말해야 해.”

“나? 난 항상 진실을 말해, 알잖아.”

“정말로, 지금.” 그녀는 머리를 그의 머리 쪽으로 굽혀 그들의 코가 거의 닿을

뻘했다. “나무 유령들, 아니 정령들은 사람들을 해친 적 없어?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던가?”

그는 마치 그녀가 스스로 물라고 말하기라도 한 듯 코를 찡그렸다. “그게 높은 꽃게 얼굴이 네게 말했던 거야?”

“그래. 하지만 사실이 아니지, 그렇지?”

그는 코웃음과 딸꾹질을 하면서 다시 장난으로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생각해, 안나?”

“난 드러머로들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네 말이 맞아.”

그녀는 허벅지를 쳤다. “그러면 그들이 그녀를 죽였을 리 없어!”

“누구?”

“내 엄마!” 그녀는 주변 나뭇가지들이 재잘대고 퍽 퍽 흔들거리는 것만큼이나 목소리를 높였다. “나무 유령들은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 오, 새시, 나는 엄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반드시!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녀는 마른침을 삼켰다.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알아낼 거야.”

그녀는 그의 팔을 쥐었다. “거기로 데려가줘, 응? 높은 버드나무로 데려다 줄 거지? 내가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 제발, 새시? 응?”

어둡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난 못해.”

안나는 그저 그를 볼 뿐이었다. 호박벌 한 마리가 그녀의 뺨을 스쳐 윙윙거렸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못한다고?”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깜박거렸지만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 발목이 나올 때까지는 말이야!” 그는 물이 찬 웅덩이에 물결이 일 듯 미소가 번졌다. “내가 나오면 너를 데리러 올게. 그리고 거기로 데려갈게.”

그녀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고 그를 껴안았다.

갑자기 이글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안나는 반짝거리는 금실 같은 나뭇가지들에 짜인 비스듬한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늦은 오후가 되었다!

“오!” 그녀가 외쳤다. “주인아저씨가 곧 오실 거야.” 그녀는 참새를 어깨 위에

올렸다. “난 가야해. 하지만 괜찮을 거지?”

“물론,” 그가 팔을 크게 벌리며 대답했다. “내겐 나를 돌봐줄 가족이 많다고.”

11장

안나에게 몇 주같이 느껴진 날들이 지났다. 공기는 벌레들과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로 활기가 넘치고 햇빛은 모래를 저녁 늦게까지 데웠다. 여름이 정말 시작됐다.

안나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안나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엔 얇은 물웅덩이가 높은 파고에 다다른 것처럼 새시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언제 그가 그녀를 데리러 올까? 그리고 그가 아직도 그녀를 버드나무로 데려가고 싶어 할까?

그녀가 어느 늦은 오후 물가를 따라 걷고 있을 때, 시원한 물결이 그녀의 발에 넘실거렸다. 젖은 모래가 그녀의 발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녀는 새시와 함께 할 여행이 궁금했다. 그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안전할까? 만일 모든 나무 정령들이 새시처럼 친절하고 장난기 있지 않다면 어찌지? 아마 그들 중 몇몇은 진짜 유령들일지 모른다.

그녀는 숲속의 그 얼굴을 기억하며 몸서리를 쳤다. 게다가 주인이 말해준, 머리에서부터 찢겨진 눈, 잔인한 발톱에 물려 찢긴 살갓, 피가 흐르는 내장들은 나무에 걸쳐져 있었다는, 유령들에게 죽임 당한 불쌍한 동물들의 섬뜩한 이야기들.

그녀는 올드벌을 보며 성큼성큼 다가가 전나무의 우둘투둘한 뿌리들 중 한 곳에 앉았다. 그 익숙한 시큼하고 달콤하기도 한 냄새가 파도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녀가 시원한 그늘에 앉자 이글은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쪼느라 바빴는데 그녀의 곁으로 뛰어왔다.

안나는 겹겹이 달린 바늘잎 나뭇가지를 들여다보았다. “뭘 믿어야 할까, 벌? 새시는 정말 나무 정령일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너는?”

나무는 몸통에서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게 다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올드벌의 몸에 머리를 기대 쉬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무의 생명과 뒤섞인 무언가. 영혼일까? 아니면 그냥 나무즙?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떠 숲과 그 너머에 펼쳐진 것을 향해 돌렸다. 멀리 능선은 누군가

구름 조각으로 엮은 담요처럼 안개로 덮여 있었다. 그녀를 높은 버드나무로 끌어당겼던 것은 정말 무엇이였을까? 엄마의 기억, 아니면 다른 것?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 그녀는 정말 엄마가 아니라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한 것인지 모른다. 바람 소리처럼 들렸고… 심장이 고동쳤던 노래들.

그날 저녁, 계살 케이크와 고등어 수프의 저녁식사가 끝나고 주인은 세심히 모든 문과 창문 결쇠들을 확인했다. “빌어먹을 신경 쓰기도 귀찮네,” 그가 툭툭거렸다. “오늘이 보름달 밤이라 그 유령들이 나와 돌아다닐 거야.”

그가 그녀를 향해 얼굴을 획 돌렸다.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 난로에서 나오는 주황색 빛이 그의 이마에 깜박거렸다. “요사이 꿈들을 더 이상 안 만나지?”

안나는 레깅스를 수선하려다 올려다봤다. “아뇨,”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온 마음을 열 수 있다면 하고 바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오래 전에 하던 대로, 그때 그녀는 어렸다.

“좋아.” 노인은 파이프에 손을 뻗어 담배통에 말린 해초를 조금 채운 다음 버렸다. “아아! 담배도 지긋지긋하군, 제길. 이 여름날은 길고 악랄하지.”

안나는 동정심이 일었다. “아저씨는 고기를 잘 잡았잖아요.”

“그런대로,” 그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우릴 먹여 살려야 해, 그렇고 말고.” 그의 눈은 불빛속의 석탄처럼 빛났다. 그는 조금은 따뜻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넌 점점 더 크고 있어. 그리고 난 네가 계속 자랐으면 해.”

그녀는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그래서 난 이 레깅스를 늘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넌 잠이 필요하지.” 그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가 웃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라.”

얼마 후, 안나는 짚으로 만든 매트에 누웠다. 그녀는 밀짚 천장에 불빛이 깜박거리는 걸 보고 난로보다는 다른 데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밤 잠을 잘 자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녀는 덩굴 거리며 뒤척였다. 짚 조각이 그녀의 목을 찔렀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나,” 목소리가 불렀다. “로완나.”

그녀는 일어나 앉았다. 달빛의 손가락들은 그녀의 짚자리 가를 더듬으면서 덧문

틈으로 뻗어왔다. 자신을 부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오두막집 밖 파도가 튀는 소리였다.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불렀다. 그녀는 확신했다. 새시? 아니… 그는 아냐, 하지만 다른 누군가야. 그래, 그녀가 아는 누군가. 하지만 누가? 지금도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귀가 아닌 뺨속 깊은 데서.

바깥이야. 바로 지금, 날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일어나 흙바닥을 살금살금 걸어갔다. 주인은…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는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녀는, 거의 꿈을 꾸듯 편안히 잠든 주인 옆을 까치발로 지났다. 매우 조용하게 미끄러지듯 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가 빗장을 만지려다 얼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문을 여는데 문제는 없을까? 그녀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을까?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당긴 것이 너무 세게 당겼다. 그녀는 미끄러지듯이 빗장을 열었다. 차가운 밤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풀로 만든 잠옷을 뚫고 갔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해변으로 걸었다.

올드별은 움직임 없이 바라보며 서있었다. 전나무 나뭇가지들이 은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뒤에, 숲 위에 거대한 원의 형태가 두 번째로 밝게 빛나며 떠 있었다. 떠오르는 달이었다!

어쩌면 달이 그녀를 불렀나? 그녀는 달이 나무들 위에 문어 먹물같이 어두운 하늘에 떠올라 있어 황홀하여 바라봤다. 달빛은 구름들을 가로질러 길을 만들었다. 햇빛이 비치는 바다처럼 빛나는 길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그 빛나는 길은 하늘을 가로질러 능선에 가장 높은 둔덕으로 쪽 뻗어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거기 홀로 서있는 단 하나의 나무에서 끝이 났다. 그래, 높은 버드나무는 오늘밤처럼 매우 뚜렷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 아치형 나뭇가지들은 스스로 빛나는 것 같아 보였다.

안나는 언뜻 누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았다. 버드나무! 그녀는 숲가로 더 가까이 걸어갔다. 네게 갈 거야, 갈 거라고 약속해.

“빌어먹을, 애야! 이 밤에 밖에서 뭐하는 거야?”

주인이 오두막 문에 서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번뜩이는 번개처럼 밝은 달빛을 띠며 그녀를 노려봤다. 그리고 그녀가 쳐다보고 있던 곳을 보고선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알았어야 했어, 넌 멍청한 애였지! 산마루 유령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
니!”

“하지만 아저씨…,”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게 아니라고요.”

“뭐?” 그는 그녀의 어깨를 짚었다. “저기 유령이 없다는 말이야?”

“아아,” 그녀는 몸을 뒤로 빼며 비명을 질렀다. “제 말은 어찌면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단 거예요.”

그는 그녀를 더 세게 쥐었다.

“아아, 아저씨, 제발요! 아프다고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움켜잡은 손을 조금 풀었다. “저 나무는 끔찍하게 위험
해, 애야. 끔찍하게 위험하다고! 지금쯤은 너도 분명히 알잖아.”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저었다.

오랜 동안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흐려져 갔다. “난 너를 잃고 싶
지 않단다, 애야. 그 이후 내 모든 것을…”

그가 말을 멈췄다. 그는 할 수 없는 말을 삼키고 싶은 듯이 입안에서 혀를 움직
였다. 그는 마침내 쉼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너를
데리러 오는 유령들 앞에.”

문이 그들 뒤에서 광하고 달치고, 바람이 올드벌을 밀치며 다시 일었다. 달빛에
빛나는 나뭇가지들은 아래로 축 늘어져 한숨 소리를 냈다.

12장

낮이 더 길어지면서 버드나무에 가고 싶다는 안나의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해 안에 철썩 부딪치는 따뜻한 파도나 모래 위에서 노는 물개새끼도 이제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오늘이 그날인가? 새시가 오늘 아침에 올까?” 그녀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과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그의 얼굴은 굳어보였다. 그렇다, 마른 짚처럼 부서질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주인이 바다까지 배를 끌어 하루 일을 하러 노를 저으며 떠난 직후, 안나는 울드벌 곁에 앉았다. 그녀는 두 뿌리 가운데 바늘잎 둔덕에 손을 올리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뭐였지? 자세히 보자, 작은 분홍색의 발을 보았다. 그녀는 바늘잎들을 옆으로 밀었다.

쥐의 등지였다! 엄마 쥐는 옆으로 누워있었고, 장미꽃 봉오리처럼 붉은 네 마리 새끼들은 젖을 빨려고 애쓰면서 엄마 쥐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섯째는 굴러 나와 도와 달라는 듯 꺾꺾거렸다. 안나는 그 새끼 쥐가 있던 데로 살짝 밀어 넣었다. 그동안 엄마 쥐는 밝고 까만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나는 바늘잎으로 그들을 다시 덮어주었다. 그때 그녀는 숲 가장자리를 살폈다. 여전히 새시는 없다! 그녀는 나무의 옆구리를 살짝 치며 물었다, “그 꿈은 어디 있어? 왜 안 와?”

늙은 나무는 아주 살짝 흔들렸다. 나무껍질 한 조각이 시종일관 빙빙 돌면서 땅에 떨어졌다.

“나는 거기 돌아가야만 해, 벌.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오, 벌! 새시가 아예 오지 않으면 어찌지?”

전나무의 위쪽 가지에서 바늘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인내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이야!”

하지만 새시는 오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안나는 그에게서 어떤 표시를 살펴보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것

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마침내, 표시가 나타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라졌다. 그녀가 하루 동안 무를 뽑으며 밖에 나와 있을 때 그녀의 샌들이 사라졌다. 잠깐 그녀가 샌들을 텃밭 가장자리 옆에 놓고 그 다음엔 그것들이 없어졌다.

그가 한 짓이겠지! 그녀는 이글을 들어 올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곤 검은딸기나무 받을 뛰어 숲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빈터 근처에서 멈췄다. 그녀의 샌들이 거대한 너도밤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은빛 가지들 사이 샌들 옆에 친구가 매달려 있었다. 거꾸로 매달린 소년은 양손을 흔들었다. 그의 하늘거리는 머리칼은 머리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것 같았다.

안나는 낮은 나뭇가지를 잡고 다리를 걸쳐 올려 다람쥐만큼 빠르게 나무 위로 쭉뚝하게 움직였다. 새시에게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의 다리가 가지를 감싸고 있는 곳으로 미끄러져갔다. 그리곤 그의 발바닥을 간질이기 시작했다.

“후후, 이제 그만해! 후후후 히히 호호호. 안나, 그만!” 그는 몸을 돌려 그녀 옆에 바로 앉았다. 그는 온통 얼굴을 찌푸렸다. “짓궂은 짓이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잖아!”

그의 초록빛 눈동자가 빛났다. “내가 보고 싶었지, 그렇지?”

“음, 그렇진 않아.” 그녀는 얇은 미소를 띠었다. “이글과 나, 우린 밤낮으로 춤춰.”

“오, 그럴 줄 알았어.”

안나는 너도밤나무의 매끄러운 나무껍질을 발가락으로 두드렸다. “언제 갈수 있어, 새시?”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어딜 가?”

“높은 버드나무! 네가 약속한대로.”

“내가?” 그는 턱을 천천히 문질렀다. “나는 절대 약속을 하지 않아.”

“오, 너! 농담 그만해, 알겠지?” 그녀는 그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정말로, 가끔은 네가 곰일 때 더 좋은 것 같아.”

“만약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라면, 나는 언제나 다시 바꿀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 버드나무로 가는 거야!”

“정말, 지금? 왜 말하지 않았니?” 그는 잔가지를 하나 부러뜨려 그녀에게 던졌다. “그래서 언제 가고 싶어?”

“지금!” 그녀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좋아. 늙은 곰팡이얼굴이 오늘밤 자기 저녁을 지어야겠네.”

안나는 이미 너도밤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하다 갑자기 얼었다. “네 말은 우리가 오늘 안에 갔다 올 수 없다는 거야?”

그가 히죽히죽 웃었다. “네가 날수 없다면 그럴 수 없지.”

치이업! 앞치마 속 참새가 크게 짹짹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글. 네가 옳아.” 안나는 손을 뺀어 그의 헝클어진 깃털을 쓰다듬었다. “네가 우리 중 유일하게 날 수 있지.” 그때 그녀는 새시에게 얼굴을 돌렸다. “길이 얼마나 걸려?”

“최소한 이틀.”

“이틀!”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 지금 서둘러. 노인이 한번만 비스킷 만들라 그래.”

“그게 아냐, 새시.”

“그래 그럼 뭐가 문제야?”

“그게... 저, 내가 사라진 걸 알면 주인아저씨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그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주먹으로 너도밤나무 줄기를 쳤다. “잠깐! 생각이 떠올랐어!” 재빨리, 그녀는 다시 나무에 올라 그 옆 가지 위에 앉았다. “아저씨는 딱 일주일 후에, 가장 멀리 있는 돌섬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 긴 여행이야, 그리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햇빛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아저씨는 일 년에 한번만 가. 여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

“하이할로우 전야에.”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그 밤에 너를 혼자 둔거야?”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아래, 빈터 가장자리 고사리 밭에서, 어린 고슴도치가 엄마 옆구리에 코를 비비는 것을 보았다. “그래, 그때 우리는 자기만의 생활을 해야 했어.”

새시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있잖아, 그날은 숲의 특별한 밤이야.”
“무슨 말이야, 특별하다니?”
그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알게 될 거야. 머지않아.”

13장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래, 아주 알맞은 때에!

안나는 가장 멀리 있는 돌섬으로 고기잡이를 떠날 준비를 하는 주인 멜윈을 도우면서 자신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개 케이크를 좀 싸고 그의 천막을 꿰맸고, 그물들을 다 점검했다. 그러는 동안 설레는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젠장, 그건 너무 어려웠다!

아침식사 후, 주인은 난롯가 유목 의자에 앉아 담배 한 대를 물었다. 그는 녹색 연기를 한 모금 내뿜었다. 그리고 안나를 유심히 봤다.

“오늘밤 달이 뜰 거야, 애야. 거의 보름달이지.”

그녀는 물을 채우던 병에서 눈을 들어 쳐다봤다. “아, 네.”

“그럼 넌 지난 번 일을 떠올리겠지, 그 끔찍한 밤을?”

“아, 네.”

그는 죽 그녀를 바라보며 담배를 좀 더 빨았다. “내가 얘기했던 것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안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약속해요.”

그는 그녀가 물을 붓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아마도 올해는 가지 말아야겠어.”

그녀가 물병을 꼭 잡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바라보는 것을 조용히 봤다. 하지만 앞치마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여름 폭풍 속의 치는 파도처럼 고동쳤다.

이윽고, 그가 다시 말했다. “제길 우리 식량창고는!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텅 비었어. 그리고 이번 겨울 굶주리지 않으려면 훈제할 더 큰 물고기가 좀 필요해.” 그가 손바닥에 파이프를 두들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할 것 같아.”

안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시간 후, 주인은 배를 밀쳐 나갔다. 그가 바다를 가로질러 배를 저을 때, 아침 햇살이 금실 거미줄처럼 파도위에서 반짝거렸다. 안나는 그의 배가 여분의 그물

과 줄, 미끼를 내리고 수평선 너머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곤 찢어진 망토와 무 한 움큼을 가지고 문 밖으로 허둥지둥 나갔다.

그녀는 올드벌에게 들리느라 거기 오래 있었고 그는 언제나 오두막집 옆에 서있었다. 그녀는 한 번 더 냄새를 들이마시고 전나무의 거친 나무껍질을 두드렸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내려갔다.

새시는 빈터에서 그녀를 만났다. 소년은 안나의 어깨 위에 타고 있는 이글을 간질이러 손을 뻗자 그 벌로 그를 물었다. 그는 웃으며 옆에 있는 안나보다 앞서 갔다. 그들은 맨발로 나뭇잎과 이끼를 세계 밟으며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르진 않았다! 안나는 바위와 땅위에 부러진 가지들을 뛰어넘고 달리기 시작했다. 새시는 그녀 곁을 따라 거닐었다.

난 곧 거기에 갈 거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어쩌면 오늘이 가기 전에 높은 버드나무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녀의 엄마에게, 얼굴을 기억할 수 없지만 엄마의 노래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다.

햇살이 빛의 줄기처럼 흔들거리며 나무들을 비쳤다. 안나와 새시는 무성한 독버섯과 청록색의 이끼 언덕을 마주보게 되었다. 오, 향기! 그녀는 흠으로 변하는 나무의 곰팡내와 햇볕에 녹은 송진의 달콤함, 시냇가에서 씻긴 릴베리의 톡 쏘는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냄새들이어서 그 냄새를 다 말할 수도 없었다.

“속도를 늦춰, 안나.” 옆에서 달리던 새시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산등성이의 반도 가기 전에 완전히 지칠 거야.”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비틀거렸지만 훨씬 더 빠르게 뛰려고 애썼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해,”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끝까지...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해... 내일 밤까지.”

“우린 해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녀는 부러진 가지를 뛰어 넘으려고 했지만 발이 걸려 땅에 넘어졌다. 그녀는 고사리 사이로 굴렀다.

새시가 그녀를 향해 몸을 굽혔다. 그는 웃음을 감추지 않고 고사리들을 옆으로 밀었다. “이제 걸을 준비 됐니?”

“아니, 이 늙은 따개비야!” 그녀는 일어나 머리카락에서 나뭇잎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이글을 넘어진 곳의 뒤엎긴 덩불에서 들어올렸다. “하지만 걸을게, 그렇게 할게.” 그녀는 새시를 팔꿈치로 밀쳤다. “네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동안은.”

“장담해. 네가 고사리 밭에서 졸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그들은 안나가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모양과 크기와 색깔의 나무들이 있는 숲속으로 내려갔다. 아주 많은 다른 종류들! 그림자조차 다양했다. 소나무들은 키가 크고 뻥뻥이 있었고 마가목들은 부드럽고 둥글며 산사나무들은 어두웠고 군데군데에 있었다.

어떻게 숲을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해안선에서 보면 그렇게 보였으니 괜찮다. 하지만 아니, 꼭 마을 같았다. 나무들의 마을.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것들은 빈터의 은빛 너도밤나무와 올드별이 다른 듯이 서로 달랐다.

물푸레나무는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너구리 가족을 품은 채 서있었다. 어린 느릅나무는 그들이 성큼성큼 지나갈 때 기쁨 있게 흔들렸다. 나무는 나뭇잎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댄서가 빛나는 드레스를 입은 듯 보였다. 그 위에 가문비나무의 몸통은 웅크리고 굽어서 가지들이 땅을 쓸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아주 오래된 오크나무는 뿌리에서 자라는 묘목들 위에 거대한 팔을 뻗고 있었다.

안나는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길이 하나라면! 새시는 하나의 길을 보는 듯했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이윽고, 안나는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방에 나뭇가지들이 툭 부러지고 삐걱거리고 킁킁댔다. 나뭇잎들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숲을 통해 메아리치며 잊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녀는 열심히 잊으려 할수록, 주인이 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나무의 정령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지금!

그들은 뻥뻥한 상록수 숲을 지나갔다. 갑자기 그녀는 그들 옆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봤다. 그림자다! 나무처럼 보였지만 길고 늘어진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그녀는 주위를 돌고 어두운 나무 몸통과 뿌리, 그리고 가지들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턱을 문질렀다. 그 그림자가 어디로 사라졌지?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

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 그림자를 보니 왠지 울드벌이 생각났다.

“어서와!” 새시가 위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햇빛이 비추는 호두나무 옆에 서 있었는데 나뭇가지들은 난로에 구운 견과류냄새가 났다. “우린 갈 길이 멀어.”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즉시,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진흙과 마른 땅, 가파르고 평평한 땅, 햇빛이 들고 그들이 진 땅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지났다.

머지않아, 안나는 새로운 것을 알아차렸다. 낮이 지나면서, 나무들은 더 조용해졌다. 훨씬 더 조용했다. 고요함이 숲에 들어와 안개처럼 숲을 채웠다.

딱딱 부러지거나 끽끽거리는 나뭇가지들이 적어졌고 속삭이는 나뭇잎들도 줄어들었다. 다람쥐들조차 재잘거리기를 멈췄다. 이윽고, 두 쌍의 발이 걸어가는 소리를 빼고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

제길, 그녀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드디어 그들은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을 마시려고 멈췄다. 안나는 이글이 냇가 가장자리로 뛰어다니는 동안 두 손으로 동그랗게 컵을 만들어 물을 텀다. 새시는 물속에 머리 전체를 밀어 넣었다. 그리곤 여기저기 물을 튀기며 흔들었다. 이글은 짹짹거리며 건강한 날개를 퍼덕거렸다.

안나는 어린 너도밤나무에 몸을 기댔다. 매끄러운 나무껍질은 바닷물에 씻긴 조개껍질처럼 빛났다. “새시, 왜 나무들이, 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느껴지지?”

“네가 그걸 느껴?” 그가 씩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고 수년 전 일어난 화재로 검게 그을린 언덕을 넘어 안개가 낀 습지 가장자리를 돌아서 갔다. 점심은 새시가 너타살라라고 부른, 골든그라스의 끝줄기와 안나의 무를 곁들여 먹었다. 그리곤 수련 잎으로 거의 뒤덮인 호숫가 길을 계속 걸어갔다. 뚱뚱한 청개구리들이 어쩐지 조용하게 나뭇잎에 앉아있었다.

시종일관 고요함이 더해갔다. 폭풍우 구름이 터질 준비가 된 듯이.

늦은 오후의 빛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들어올 때, 땅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늘로 닿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 바위를 넘고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안나는 허벅지가 뻘뻘하고 종아리가 아팠지만 그 모든 고요함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 커져가는 긴장감을.

안나는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미묘한 전율을 느꼈다. 문지 앉고서도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멀지 않았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망처럼 엮인 나뭇가지들을 올려보았다. 능선 꼭대기나 거기 서있는 버드나무는 볼 수 없었다.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는 가깝다. 정말 가깝다.

비탈은 더 가팔라졌다. 무릎과 종아리가 옥신거렸다. 그녀는 잠시 쉴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멈출 수 있겠는가?

그때 새시가 우뚝 솟은 마가목 아래 용단처럼 깔린 두툼한 이끼를 가리켰다. “저기,” 그가 속삭이며 말했다. “저기가 우리가 오늘 온 만큼이야.”

후들거리는 다리에도 아랑곳 않고 말했다. “좀 더 높이 갈 수 없니? 우린 지금 까지 능선 반밖에 안 왔어.”

“그 이상이야.” 그가 이끼에 누워 다리를 폈다. “그렇지만 우린 여기서 쉬어야 해.”

안나는 다들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부드럽고 도톰한 용단 위에 누웠다. 몸이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글은 이끼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뛰어다녔다.

그들은 주위의 숲처럼 말없이 기다렸다.

14장

잠시 만나와 새시는 나무들처럼 조용히 이끼에 누워있었다. 그저 보기만 하면서. 하나씩, 나뭇잎과 바늘잎, 잔가지들이 모두 낮의 마지막 빛에 반짝거리다 흐릿하게 잠깐 빛나고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 머리위에 마가목 가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눈동자가 수상하게 주황빛으로 빛났다.

안나는 짙어진 어둠을 보다가 옆에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희들, 아… 너희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어?”

“그래, 드러벌로들이 여기 있어. 하지만 기다리는 중이야. 다음 일을.” 그는 깔깔 거렸다. “일 년에 딱 한번, 하이할로우 전야에 그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안나는 생각했다.

공기가 팽팽해졌다. 그녀의 목 뒤의 머리털이 쭈뼛 섰고 팔에 닭살이 돋았다. 하늘은 폭풍 속에서 곧 터질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런 폭풍을 본 적이 없었다.

서서히, 마지막 붉은 빛이 사라졌다. 안나는 차가운 공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끼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러서 친구와 어깨를 맞댔다.

바로 그때 마가목의 가장 낮은 나뭇가지의 맨 아래 나뭇잎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약하게 떨리더니 빠르게 더 빠르게 떨렸다. 다음엔 위쪽의 더 많은 나뭇잎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일제히 일렁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다는 것을 빼고는. 그래도 안나는 이걸 느낀 건 아니었다.

새시처럼, 그녀는 무릎을 잡고 일어나 앉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주위로 온통, 나무들은 흔들거리며 숨은 바람 속에 떠들어댔다. 그때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나무 나팔처럼 매우 깊은 소리를 내면서 땅을 흔들었다. 안나도 살이 떨렸다.

또 약간 더 높은 소리가 멀리서 차임벨처럼 울렸다. 또 소리가 들렸다. 또 소리가 들렸다.

곧 숲 속 가득 합창이 되었다. 나팔 소리와 둥둥 울리는 소리와 호각소리가 나면서 소리들은 숲 전체에 소리의 커다란 강을 이루면서 크게 울렸다. 소리가 높이

올라갈 때는 나무들도 수 천 개의 팔처럼 가지를 위로 올렸다. 그리고 소리가 낮게 떨어질 때는 건장한 뿌리들이 약간 흔들거리며 흠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나무뿐 아니라 공기도 흔들리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느릅나무, 오크나무와 산사나무 그리고 너도밤나무를 흔들면서 숲을 지나며 울부짖는 듯 했다. 나뭇잎들과 바늘잎 그리고 나무껍질 조각들이 여기저기 굴렀다. 공기에선 삼나무 진과 호두 오일 냄새가 났다. 나뭇가지들은 한 소리를 만드는 합창을 하며 치고 빠격거리다 조용해지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숲의 소리였다. 숲의 진정한 소리이자 가장 깊은 소리였다. 안나는 확신했다. 그래, 이것은 살아있는 야생 숲의 목소리야!

그녀는 새시를 언뜻 봤는데 그가 그녀를 봤다. 그의 녹색 눈동자는 마치 별이 뜬 것처럼 빛났다.

하이할로우 전야가 왔다.

갑자기 안나는 몸을 돌렸다. 한 얼굴이 그들 옆 마가목의 나무껍질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 얼굴이 나무 몸통에서 자라나는 것을 바라봤다. 그녀의 몸 전체가 경직됐다. 그런데... 이 얼굴은 숲에서 그녀가 전에 봤던 것과는 매우 달라 보였다. 이 얼굴은 둥글고 커다란 눈과 크고 주름진 입을 가진 쾌활한 모습이었다. 짙고 어두웠지만, 그 눈은 나뭇잎에 드리운 달빛처럼 내면의 빛으로 푸르게 빛났다.

그녀는 숨을 참으면서 바라봤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나무 정령이 있다!

마가목의 그 얼굴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마치 나무의 옹이처럼 부풀었다. 그리고 두 개 긴 손가락이 달린 두 손이 나오고 그 나무처럼 둥근 배와 울퉁불퉁한 두 발이 나왔다. 서서히 그 형체는 나무껍질 틈에서 새어나와 몸통에서 나왔다. 마침내, 축축한 습기와 함께,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면서 그것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드디어 그 뚱뚱한 작은 녀석은 스스로 서서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가 나무뿌리들을 너무 세게 발로 차서 둥근 배가 흔들거렸다. 그는 새시에게 슬쩍 윙크를 하고 빙글빙글 돌고 기쁨에 아우성을 치더니 더욱 빠르게 다시 돌아왔다.

주위에 온통, 정령들이 옹이구멍과 나무껍질 틈이나 뿌리에서 몸을 밀고 나무 바깥으로 나왔다. 그들도 역시 이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디가 많은 한 늙은 정령은 너무 많이 돌아서 쿵하고 땅에 넘어졌고 어지러워하다 활짝 웃었다. 창백한

피부의 자작나무 정령은 달랑거리는 땅은 머리를 옆으로 던지고 옆 구르기를 하고 숲 바닥에서 공중제비를 돌았다. 안나의 머리 위에는 두 손으로 가지를 잡고 있는 날씬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도 덮는 여름 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앞뒤로 흔들자, 긴 머리칼이 팔위로 펄럭였고 어쩐지 어린 느낌나무처럼 우아해 보였다.

안나는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게 현실이지만 정말이지 놀라웠다.

드러머로들이 춤을 추는 동안, 그 이상한 음악소리는 훨씬 더 크게 울렸다. 바람도 불어와 소용돌이 치고 휘몰아 쳤다. 바늘잎들과 잔가지들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에 가득 날라 다녔다. 사방에서, 어린나무들은 리듬에 맞춰 뿌리에다 발을 구르고 늙은 정령들은 음에 맞춰 제각기 흔들거렸고 나뭇가지들은 허공에서 노를 저었다. 게다가 안나는 뼈 속부터 그 리듬이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안나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새시였다! 그는 그녀를 파티로 끌어당겨 마가목 주위를 빙빙 돌았다. 손을 더 꽉 잡고 그들은 뛰고 빙빙 돌고 다리를 높이 쳤다. 안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그냥 모든 게 흥분됐다.

“오, 새시…” 그녀는 앉아 쉬고 있던 삼나무의 텃수룩한 머리 위로 뛰었다. “난 이게 너무 좋아, 정말 좋아!”

“나쁘지 않네!” 그가 까르르 웃었다. “좀 더 연습하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럼 매일 연습하자!” 그녀는 일제히 돌고 있던 느낌나무 가족을 뱅뱅 돌면서 미소를 지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춤을 추고 있었다! “새시,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내일까지는 기다려.” 그가 소리쳤다. “우리가 같이 그 버드나무에 올라갈 때. 그리고 내가 찾게…”

“잠깐,” 그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녀의 춤이 느려졌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혼자 거기 가고 싶어.”

“정말?”

“정말이야. 그냥 나와 버드나무만 있는 게 더 좋다고 무언가 내게 말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게 더 좋다고.”

새시는 그의 모래 색깔 머리털을 흔들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나 없이 그렇게

재밋진 않을 거야.”

“그래, 그건 맞아.”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정말 그래.”

바로 그때 누군가 흰색 산딸기 화환을 그녀의 이마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새시의 손을 놓고 누구인지 보려고 주위를 뱅 돌았다.

그녀 앞에 입을 비틀며 씩 웃고 있는 울퉁불퉁한 늙은 친구가 서 있었다. 그는 전나무 방울로 장식을 한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안나에게 뺨뺨이 몸을 굽히자 그녀는 시큼하고 달콤하기도 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별!” 그녀는 오랜 친구의 목에 팔을 뻗 돌렸다.

그는 가족 같이 뺨뺨한 팔로 그녀를 감쌌고, 그들은 통통 튀는 지그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자 이제 그만, 이 아가씨야! 호호, 호호. 난 네가 날 모를 줄 알았지.”

“오, 별. 난 늘 널 알아볼 거야!”

그는 모자에서 전나무 방울을 훌뿌리면서 쿵광거리는 리듬에 머리를 흔들었다. “너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 좋아, 꼬마 아가씨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빙그르르 돌고 더욱 빠르게 춤을 쳤다.

새시가 그녀의 어깨를 쳤다. 그는 올드벌에게 인사하고 새롭게 시작된 자유분방한 열기에 안나를 이끌었다. 그녀는 맨발로 바닥에서 뛰어올랐고 겨우 바닥에 발을 닿을 쯤 다시 뛰어올랐다.

다른 정령들과 같이, 그들은 밤이 깊도록 즐겁게 뛰놀았다. 때로는 짝을 지어 춤을 추고, 때론 나무들 틈에서 길고 헤어진 덩굴의 일부가 되어 춤을 쳤다. 그리고 때로 안나는 떠오르는 달빛 아래서 빙글빙글 돌고 돌면서 혼자 춤을 쳤다.

마침내, 축제가 끝났을 때, 그녀는 꿈속에서 계속 춤을 쳤다.

15장

안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몸을 흔들다 깨어났다.

그녀는 마가목 아래 이끼 방석에 누워있었다. 나뭇가지들과 껍질은 이상할 데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표시는 보이지 않았다. 오, 하지만 그녀는 잘 알았다! 잔가지와 바늘잎들이 그녀의 등을 찔렀고, 부서진 산딸기들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구부렸다. 매우 아팠다.

그렇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멋진 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뻗뻗이 일어나 앉아 발바닥을 문질렀다. 발바닥은 숲처럼 시꺼멓다. 게다가 나무진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발가락 사이에 고사리의 잔가지를 뽑았다. 그게 간질이고 있었다.

안나는 주위에 빛줄기가 드리운 나무들을 뻗히 쳐다봤다. 나뭇잎들, 나무껍질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마치 세찬 바람이 숲을 치고 간 듯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이 할로우 전야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거기 있었다.

새시도 거기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찼던 플라잉 댄스와 높이 차기를 떠올리곤 미소가 번졌다. “다시 새시와 춤을 출거야, 꼭.”

그녀는 땅에서 더 높은 비탈길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우선… 높은 버드나무. 지금 거기 가야겠어. 드디어.”

그녀는 허벅지와 종아리가 아팠지만 뛰어 올랐다. 그러고는, 다람쥐처럼, 마가목 나무에 짹짹 올랐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능선 쪽을 응시했다. 좀 더 가깝게 보이는 그곳은 가파르게 솟아 있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그녀가 아주 잘 아는 형태가 있었다. 그 버드나무는 손짓하는 듯 바람에 흔들렸다.

하지만 잠깐! 그녀는 다른 것을 봤다. 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가파르고 물이 흐르는 절벽이 능선의 산마루를 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안나는 턱을 어루만졌다. 틀림없이 그것을 에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럴 순 없지, 버드나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절벽을

곧장 넘어 가는 것이다.

그녀는 마가목 나무 아래로 급히 내려갔다. 막 출발하려는 때, 발아래 이끼더미에서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글!” 그녀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 깃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널 까먹었지? 그놈의 춤이 내 머리를 어떻게 했나봐.”

새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노려봤다.

“하지만 우리 지금 갈 거야,” 그녀는 반은 노래하듯이 말했다. “능선 꼭대기로! 오, 거친 바람을 맞는 나무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 이제 내 어깨에 올라와.”

그녀는 나무껍질과 잔가지 부스러기 위를 밟으며 비탈길을 저벅저벅 걸어갔다. 황금빛 햇살이 나무들 사이를 통과해 반짝이는 빛 웅덩이를 땅에 만들었다. 블루벨과 로즈힙은 바람에 흔들렸다. 벌들이 달콤한 향기가 나는 풀 위에서 웅웅거렸다.

오늘 숲은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더… 친근했다. 평화롭게. 그녀는 이마에 머리 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리고 누가 정말 변한 것인지 궁금했다. 숲인지, 자신인지.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다. 저 위에서 뭘 찾게 될까? 물론, 그 나무겠지… 하지만 또 뭘?

그녀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은 유목보다 더 마르게 느껴졌다. 뭘가를 찾아야만 했다! 매우 사소한 것이라도. 그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는 독미나리에 매달려 있는 잎이 무성한 몇 개의 덩굴들을 잡아당겨 떨어진 나무 몸통 더미를 걸어갔다. 하지만, 땅은 서서히 가팔라졌다. 게다가 까만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있었는데 아마도 절벽에서 부서진 돌덩이들 같았다.

그때, 그림자가 앞에 있었다. 그 절벽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 아래 서서 허리에 손을 올렸다. 이런! 절벽은 몹시 가파르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 물이 틈새로 졸졸 흘러나와 표면에 흘러 바위를 빛나게 했다. 그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끄럽다는 걸 알았다. 아주 미끄러울 것이다.

“힘들 것 같아, 이글.”

참새는 사납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물론 조심할 거야, 바보야.”

그녀는 바닥에서 위로 구불구불 이어진 깊은 틈새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잡고 땅에서 몸을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그 틈새에 발가락을 박고

더 높이 기어올랐다.

그녀는 조금씩 절벽을 올랐다. 때때로 그녀는 바위에 몸을 바짝 붙였고, 때로는 물기가 있는 암벽층에서 자라난 이끼더미에 붙어 있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허공에 있는 것 같았다.

절벽 꼭대기에 가까웠을 때, 그 긴 틈새는 갑자기 끝나버렸다. 어떡하지? 그녀는 한껏 용기를 내 몸을 내밀어 표면을 살폈다. 그녀의 바로 오른쪽에 얇게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손을 뻗었다. 더 멀리... 더 멀리...

안 돼! 닿지 않았다.

안나는 코에서 땀방울을 털어냈다. 손이 닿지 않으면, 발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이제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다리 한쪽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그 바위를 잡았다! 튀어나온 바위를 감싸고 버텼다. 그런데-

바위 테두리가 부서졌다! 그녀는 떨어질 뻔 했지만 잡고 있던 곳을 손으로 깊이 파고들어 미끄러지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절벽에서 부서진 조각들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진정하려 했다. 그리고 가쁜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다리를 다시 바깥으로 흔들며 바위의 낮은 쪽을 잡았다.

“꼭 잡아, 이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바위로 체중을 옮겼다. 돌 표면을 미끄러지면서 다시 잡을 곳을 찾았다. 차갑고 축축한 바위에 팔꿈치와 무릎이 굼혔다. 허벅지 근육은 끔찍이 아팠다.

성공이다! 이글은 발로 그녀의 어깨를 계속 두들겼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이글과 코를 비볐다.

그 바위는 위로 구부러져 있었고, 그걸 따라서 씩씩하게 움직였다. 얼마 후, 그녀는 바위 가장자리 틈으로 몸을 잡아당겨 꼭대기에 안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딸기나무와 나무들로 뻗뻗이 들어찬 위쪽 경사면을 마주하려 몸을 돌렸다. 버드나무를 볼 수 없었지만 멀리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글의 목 깃털을 굽으면서,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친구야.”

경사면에서 머지않아 그들은 빼곡한 산사나무들을 마주쳤다. 너무 빼곡해서 나뭇

가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도 안나는 곧장 그곳으로 갔다. 바람이 휘저어 나무들의 강한 향이 그녀에게 풍겨왔다. 놀랍게도, 나뭇가지들은 뽀족한 끝을 뒤로 흔들며 그녀를 덤불 속으로 안내하는 듯이 길을 만들었다.

그녀가 갑자기 나뭇가지들에서 뛰어 나왔다. 밝은 햇빛이 눈을 찡그리게 했다. 하지만 적응한 후, 눈을 훨씬 더 크게 떴다.

그녀 앞에 그 높은 버드나무가 서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숨을 돌렸다. “세상에…”

나무는 하늘 높이 가지가 아치형으로 굽은 채 외로이 서 있었다. 나무 가지에는 땅에 닿을 듯 폭포같이 쏟아지는 길고 거침없이 뻗은 장막처럼 나뭇잎들이 달려 있었다. 그 은빛 초록의 나뭇잎들은 아주 약한 바람에 물결치며 흔들거렸다.

그녀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면서 서있기만 했다. 가슴 속에선 심장이 고동쳤다. 이상하게도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 몸 전체에 퍼졌다.

그녀의 눈이 흐려졌다. 눈을 깜박거렸지만 더 촉촉해졌다. 신 목소리로, 햇빛에 촉촉한 두 뺨을 반짝거리며 그 나무에게 말했다.

“높은 버드나무야… 난 안나야.” 그녀는 물결치는 나뭇잎들에 더 가까이 발을 옮겼다.

나무의 긴 어린가지들이 훨씬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것들은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달래는 듯하고 환영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안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에 들어본 소리처럼 느꼈다.

또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음… 내가 왜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나는 엄마를 찾고 싶어. 아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 엄마가 전에 여기 왔었지,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난 그냥… 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

부드러운 바람이 층층이 난 나뭇잎들을 휘저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손짓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안나는 뿌리들 틈을 밟았다. 그것들은 발밑에서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체중이 실리자 아주 살짝 구부러졌다. 그녀를 반기는 듯이.

그녀는 천천히 나뭇잎을 밀며 지났다. 이제 나무의 강인한 몸통이 보였다. 아주

두꺼워서 다섯 개의 나무 몸통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햇빛이 나무껍질 위에 비추고 반짝거렸다.

그녀는 머리 위로 가지에 손을 뻗었다. 키에 걸맞게 튼튼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나무에 오를 때야! 그녀는 쉽게 몸을 흔들며 올랐다.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건 가장 키가 큰 나무에 오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참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멈추고 더 높이 가지 못하게 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는 초록의 장막으로 덮인 낮은 가지에 걸터앉아 나무에 기댔다. “이제 여기 왔어. 정말 여기로 온 거야.”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어 나뭇잎 장막을 휩쓸었다. 그것들은 바스락거리고 바깥으로 나부꼈다. 나무 전체가 큰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안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엄마가 오래 전 품에 안고 흔들었던 것처럼 그 버드나무가 그녀를 흔드는 듯 했다. 이 나뭇가지들은 그녀를 매우 부드럽고 매우 완벽하게 감쌌다. 그녀는 더 가까워서 나무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나뭇가지들 속에서 느리고 조용한 속삭임을 들었다.

흐랄랄라 로 와아아쉬하와아아이, 로 흐랄랄라 와아아쉬하아알라아이. 소우올라 쉬호와아 라쉬할로오이, 헤쉬하나아알라 쉬하아나 쉬호오오오.

안나에게, 나무의 속삭임은 거의 노래와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말을 기억했다. 바람 소리처럼 들려왔던 노래, 심장이 고동치듯이…

“로완나! 거기 있는 거냐!”

주인 멜윈의 선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다리를 잡아 나뭇가지에서 낚아챘다. 그녀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빌어먹을, 이 계집애, 네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있었지! 이제 가자!” 그는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나무에서 끌어당겨 숲으로 내려갔다.

날카롭게 바람이 능선을 때렸다. 버드나무는 사납게 흔들렸고 가지들은 채찍처럼 탁 쳤다. 다른 나무들은 가까워서 몸부림치며 비틀거리고 가지들을 휘둘렀다. 안나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노인의 손은 더욱 짝 조일 뿐이었다.

“안 돼!”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그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쳤다. “보내주세요!”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듯했다. “조용해, 한심한 애 같으니라고!”

그는 거칠게 그녀를 끌고 갔다. 그들이 절벽 꼭대기에 왔을 때, 그는 방향을 꺾고 그녀를 옆으로 끌었다. 그리고 다시 그 비탈길을 내려갔다. 이글은 안나의 어깨를 꼭 잡으려 했지만 결국 떨어져 레드 커런트 덤불에 떨어졌다.

안나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마침내 그녀가 무릎을 꿇어 그가 쉽게 끌 수 없게 되자, 그는 허리띠를 풀어 어부들이 묶는 매듭으로 그녀의 팔을 묶었다. 그리고는, 고등어가 가득 든 그물을 들쳐 메듯 머리를 흔들며 어깨 위에 그녀를 던져 올렸다. 그는 해안가로 다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이제 숲 전체는 성난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신음 소리를 내고 노인에게 나뭇잎과 잔가지, 바늘잎 그리고 부스러기들을 쏟으면서 가지들을 서로 부딪쳤다. 몇몇 가지들은 그의 옷을 할퀴고 또 다른 가지들은 그의 앞에서 부러져서 쿵하고 떨어졌다. 귀신처럼 생긴 얼굴들이 나무와 옹이에 나타나 화난 듯 노려보았다.

하지만 주인 멜윈은 멈추지 않았다. “이젠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는 계속해서 숨을 헐떡였다. “지금도 앞으로도.”

16장

마침내, 그 긴 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주인 멜윈은 숲에서 해안가로 휘청거리며 나왔다. 부푼 해가 수평선에서 주황빛으로 빛났다. 줄곧, 맹렬한 바람이 웅웅 불어댔고 모래와 나무토막들 그리고 나뭇잎들을 날렸다. 노인의 뒤에서, 나무들은 나뭇가지로 활쫘었다.

그가 오두막 문을 발로 찼고 안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흐트러진 덩굴 조각을 이용해 그녀를 기둥에 묶었다. 그녀는 끈이 팔 깊숙이 묶여있었지만 떨쳐 내려고 몸을 꿈틀거렸다.

“보내주세요!” 그녀가 울먹이며 외쳤다. “오, 제발, 보내주세요.”

“조용히 해, 이 한심한 애야,” 그는 무리한 여정으로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내질렀다. 그가 오두막집 문을 광하고 닫았다. “염병할! 난 널 구하려고 했어! 그놈의 유령들은 아직도 밖에서 악을 쓰고 있다고.” 그의 이마에 깊은 흠이 패었다. “그놈들이 그 다음엔 뭘 할지 말 앓겠다.”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느라 목이 아파 다친 갈매기처럼 꺾꺾거렸다. “우릴 해치지 앓을 거라고요!”

그는 어금니를 딱 깨물었다. “저 나무,” 그가 말을 내뱉었다. “그래, 저게 너한테 한 짓이 이거냐?” 그는 핵 돌아서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야. 그래, 영원히 멈춰버리자고!”

당황하여, 안나는 그가 바깥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바라봤다. 그때 그녀는 낮고 거친 소리를 들었다. 바닷가에 끊임없이 치는 파도처럼 그 소리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무의 웅웅대는 소리에 잘 들을 수 없었지만 이건 그녀가 잘 아는 소리였다. 도끼가 숫돌에 갈리고 있었다.

도끼다! 그녀는 발바닥에 전율을 느꼈다. 이제 주인의 계획을 알았다. “아저씨는 버드나무를 베려는 거야.”

“아아-안 돼!” 그녀가 울부짖었다.

날을 가는 소리는 계속됐다.

온 힘을 다해, 그녀는 끈을 풀려고 애썼다. 그녀는 몸을 들썩거리면서 줄을 끌어

당겼다. 이런 제길! 덩굴들은 더 짝 조일 뿐이었다. 더 세계 기둥에서 밀쳐낼수록, 등이 가시에 찢리고 갈비뼈 쪽은 멍이 들었다.

“빠져나가야 해, 반드시!”

그녀는 팔을 풀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몸을 비틀었다. 땀방울이 그녀가 전날 밤 춤을 추었던 나무에서 묻은 나무진과 섞여 이마를 타고 똑똑 떨어졌다. 그녀는 능선에 위풍당당하게 크고 외로이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던 팔처럼 굽은 나뭇가지들.

안나는 무리하게 몸 전체를 흔들었다. 그녀는 더 세계 더 세계 몸을 당겼다.

그렇지만 덩굴들은 꿈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둥에 털썩 기대었다. 그녀는 목이 잠기고 옆구리와 어깨가 아팠다. 높은 버드나무가… 주인의 도끼에 베인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걸 막기 위해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쉬익, 쉬익, 쉬익. 이윽고 그가 가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허공에서 도끼의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도끼날이 나무의 몸을 찌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나무를.

안나는 주먹을 쥐었다. 다시 해야 한다!

그녀는 발을 딛고서 뒤로 밀쳤다. 하지만 전에 했던 것처럼 기둥에 들이박는 대신, 옆으로 몸을 비틀어 힘껏 기울였다. 매우 세계. 그녀는 기둥 테두리로 몸을 뺀으며 덩굴에 모든 체중을 실었다.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몸을 틀었다.

끈은 피부로 파고들었다. 그것들은 바드득거리며 더욱 짝 당겨 한 가닥이 갑자기 뜯어졌다. 그녀는 한 팔을 빼고 덩굴들을 찢어내고 다시 섰다.

안나는 아픈 팔을 문지르며 문으로 걸었다. 어떻게든 도끼를 훔쳐내야 했다.

그녀는 걸쇠로 손을 뺀다 멈췄다. 안 돼. 그녀는 주인을 힘으로 이겨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서 기어 나와 숲으로 달리는 것은 더 잘 한다. 그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새시나 보이는 누구에게서든. 어찌면 나무 정령들이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다. 오두막에서 등을 돌리고 솥돌 옆에 서있는 주인을 볼 수 있었다. 지는 해의 주홍빛깔 빛줄기가 해변과 숲 위로 밀려왔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문이 살짝 삐걱거렸지만 숲의 성난 흐느낌과 솥돌에서 계속 갈고 있는 소리에 파묻혔다. 주인은 올려보지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부드럽게, 안나는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왔다. 그녀는 올드벌의 뿌리에 서서 그 몸통 뒤에 숨었다. 전나무 껍질을 만지는 순간, 자신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제 언제든 끝장 낼 참이었다. 마침내, 그가 칼날을 확인하려고 멈추는 것을 봤다. 지금이다!

그녀는 숲으로 달아났다. 갑자기, 모래사장을 건너기 전에...

“안나!” 숲 가장자리에 검은딸기나무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새시였다! 그가 머리털을 바람에 펄럭이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글은 그의 어깨 위에 걸터앉아 보고 있었다.

노인은 주변을 뱅 돌았다. 그는 안나를 보고서 악담을 퍼부었다, “이 죽일 것!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바로 그때 그는 검은딸기나무에서 형체를 봤다. 그는 분노에 차서 입술을 비죽 거렸다. “유령! 저것 봐, 끔찍한 송곳니와 발톱 보이니? 우릴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는 도끼를 들어올렸다. “애, 물러나 있어!”

“안돼요!” 안나의 비명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졌다. “개 유령이 아녜요! 개는...”

“방해하지 마.” 날카롭게 갈린 칼날은 지는 햇빛에 번뜩였다. 그녀가 그를 막기 전에, 그는 새시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이제 죽어라, 유령아!”

갑자기 벌의 뿌리들 중 하나가 그의 발을 잡았다. 그는 팔다리를 앞으로 벌린 채, 나무 몸통을 세게 치곤 옆으로 쓰러졌다.

“자 빨리!” 새시가 불렀다. “가자.”

안나는 검은딸기나무를 한숨에 뛰어넘고 친구에게로 달려갔다. 그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에서 끄 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멈추고 해변을 돌아봤다.

주인이 모래 위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의 갈비뼈 쪽에서 피가 나와 옷을 적셨다. 그는 도끼에 찍혔다!

그는 힘없이 몸을 돌려 등을 아래로 대고 누웠다. 울퉁불퉁한 손가락으로 다친 부분을 움켜잡으며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 피가 손목과 팔뚝에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신음하고서는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얼른 와, 안나!” 새시가 외쳤다. “숲으로! 이번이 기회야.”

그녀는 숲으로 발을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친 노인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봤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가 노려봤다. “떠나라, 이 끔찍한 괴물!” 그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다.

“자, 어서!” 새시는 땅을 발로 세게 쳤다. “안나, 뭐하는 거야?”

몇 초 동안, 그녀는 그 상처에서 피가 나오는 걸 봤다. 주인은 그녀를 노려봤다. “내 눈에서 사라져버려,” 그가 화난 듯 말했다. “가! 떠나!”

마침내, 안나는 숲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자유라는 걸 안다. 그 능선으로, 그리고 버드나무로 갈 수 있는 자유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을 돌아봤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숲을 마주했다. 그러고는 새시 곁으로 달려가다 그를 지나갔다. 그녀가 빈터로 줄곧 달려가는 동안 소년은 뒤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커다란 너도밤나무에서 공터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방향을 틀고 검은오리나무 묘목이 있는 곳에서 멈췄다. 그녀의 깊이 벤 상처에서 출혈을 멈추려고 새시가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나무였다.

그녀는 잔가지를 부러뜨리고는 친구에게로 향했다. “먼저 이것 좀 씹을래?”

그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하지만 나무껍질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제 돌아올 거야?”

그녀는 침을 삼켰다. “모르겠어.” 그러고는 바로 해안가로 달렸다.

17장

검은오리나무 껍질이 제 몫을 했다. 하지만 주인 멜윈을 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힘이 들었다.

안나는 절뚝거리는 노인을 오두막으로 부축한 후, 진짜 일을 시작했다. 삼일 내 내 그녀는 소금물로 그의 상처를 씻고, 해초 패드로 찜질약을 만들고 손가락으로 물을 떠먹이고, 그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줬다. 바닥에 깔 짚 요와 오두막 구석 구석에 피가 얼룩졌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놀라움으로 눈이 튀어나올 듯했다.

“너 왔구나…,” 그가 말하고 마른 입술을 핥았다. “돌아온 거지?”

안나는 그의 살갓에 새 찜질약을 올려놓으면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를 옆으로 돌려 갈비뼈에 붕대를 감고 다시 돌려 눕혔다. 이글은 짚 요에 가장자리에 앉아 잘했다며 짹짹 소리를 냈다.

그녀는 찢겨졌다 아물기 시작하는 피부에 대한 노래를 잠시 불렀다. 나무줄기처럼 튼튼하고 묘목처럼 유연한 뼈에 관한 노래도 불렀다. 또 따뜻하고 치료하는 빛 줄기가 갑자기 비춘 숲속 어두운 공터에 대한 노래도 불렀다.

노인은 햇빛에 바랜 뼈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노래를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그녀의 손위에 올렸다. “노래도 예쁘게 하지.”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날 구해줬어. 피도 멈추게 하고.”

“아네요.” 그녀가 말했다, “검은오리나무 껍질이 한 거예요.”

그는 숨을 골랐다. “네가… 나무를 쓴 거야?”

“네, 나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마주봤다. “게다가 아저씨가 유명이라고 한 그 애한테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그는 몸 전체가 굳어졌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계속 이었다, “개는 나무 영혼이에요.”

노인은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쉼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할 게 있다.”

“지금은 아네요. 아저씨는 몸이 아프다고요.” 그녀는 난로 쪽으로 기울여 유목한 조각을 석탄들 위에 던졌다. 불꽃들이 튀기면서 방을 밝혔다.

그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들어라 애야! 너는… 내 애길 들어야 된다.”

“무슨 얘지요?”

“내가 전에 나한테 말해 달라고 했던 거.” 그는 목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결국 내가… 내가 널 어떻게 발견했는지 말할 때가 됐어. 오래 전 숲에서였지.”

안나의 눈썹이 썩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발 말해주세요.” 그녀는 낮게 쯤 그리고 앉았고 참새는 옆으로 뛰었다.

노인은 옆으로 몸을 돌렸다. 불빛이 그의 머리 뒤에서 깜박거렸다. 그는 거칠게 짊은 식탁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마치 오두막 벽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저 벽 너머,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몇 년 전, 알다시피, 난… 여기서 먼 곳에 살고 있었다. 저 능선 반대편에. 난 쓸모 있는 연장을 버리는 마을 대장장이였어. 그리고 로완나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난… 더 행복했었다. 아내도 있었어.”

안나는 입을 열었다. “그분이-”

“아니, 아니, 들어봐! 내 아내와 우리 딸, 우리 어린 딸도 있었어. 딸아이는 어렸어. 아기였지… 하지만 쯤그만 게 벌써 가수였어. 게다가 어느 날은 댄서였지. 그 아인 댄서의 영혼으로 축복받았었지.”

그는 혀를 움직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 일, 그게 뭐예요?”

“전염병 말이다!” 그가 말을 내뱉었다. “죽일 놈의 전염병. 예고도 없이 그 두 사람을 데려갔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난 도망쳤어. 전염병으로부터, 어쩔, 그보단 기억을 잊으려고. 들판과 언덕을 가로질러 멀어지려고 도망쳤다.”

그는 오래된 오크나무 껍질처럼 구깃구깃한 그의 이마를 만졌다.

그는 약간은 흐느끼는, 약간은 한숨짓는 듯 소리를 냈다. “그 아인 내 하나뿐인 딸 로완나였어!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난 그 애가 죽기 직전까지도 팔에 꼭 안았다. 하지만 딸을 구할 수는 없었어. 연약한 숨소리조차 다시 구할 수 없었지.”

그녀의 눈은 노인과 같이, 흐려졌다. 난로 석탄들은 안개를 통과한 햇빛처럼 어

숨푸레 빛났다.

“그래서… 저기 저 능선을 올랐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였어. 난 바로 그 절벽에서 몸을 던질 생각이었고. 정말로, 그 저주받은 기억을 끝낼 생각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잠잠해졌다. “하지만 거기서 난… 나무를 발견했어. 네 그 소중한 버드나무 말이다. 그리고 뿌리들 사이에서 밝게 미소를 지으며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다. 그건 여자아이였어! 정말 기적이었지.”

안나는 침을 삼키려고 애썼다.

“게다가 더 큰 기적이 있었다, 로완나! 고개를 들어 네 얼굴을 쳐다봤을 때, 넌…” 그는 그녀를 유심히 보며 말을 끝냈다. “내 딸처럼 보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던 얼굴.”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장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라. 그 말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뭐였지?

“그래서 그때,”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졌다. “그게… 난 너를 품에 안았지. 한번만 너를 안아 보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게…” 그는 침을 삼켰다. “그때 갑자기 그 버드나무 가지들이 내 얼굴과 팔을 할퀴려고 하면서 나를 잡아채려고 했어! 살아있는 듯 말아야. 화가 난 듯 말아야! 난 정말, 한 얼굴을 봤어. 무서운 얼굴이 바로 그 가지들 틈에 있었다. 나무껍질을 당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유령은 아기였던 너 그리고 나도 원했어. 하지만 난 너를 잃지 않을 셈이었지! 두 번 다시는! 그래서 너를 꼭 안고 달렸다. 그 무시무시한 숲을 내달렸고 나무들은 나를 잡아채려 하고 얼굴을 할퀴고 내 머리 위에서 부서졌었지. 그래, 난 바로 이 모래사장에 다다를 때까지 줄곧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 집을 지었단다.”

노인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내가 너를 구했다고, 알겠니? 그 유령들로부터 말아야! 그런데… 웬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뭐요?”

“내가 누군가의 아이를 훔친 것 같았지.”

누군가의…

갑자기, 안나는 이해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었다. “내가 그 버드나무의 아이군요!” 그녀는 크게 외쳤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가… 내 엄마고요.”

노인은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넌 진짜로-”

“나무 정령이야.”

부드럽게, 그녀는 그와 손깍지를 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손가락. 사람의 아이의 손가락들.

그때 안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손은 버드나무의 손처럼 가늘어 보였다. 게다가 정말 부드럽게 구부러졌다! 손마디는 가지의 옹이처럼 푹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피부는 정말 놀랍게도 초록 얼룩이 있는 갈색이었다.

“너… 이제 날 떠날 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내가 있는 곳을 항상 알잖아요. 그리고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에 내 노래를 들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갈고, 그가 의자에 앉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어깨 위에 이글을 올려놓고,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걸쇠를 들어올리기 전, 멈췄다.

잠시, 그녀는 오두막을 둘러봤다. 머리 위의 짙 천장, 난로의 돌들, 아주 많은 밤을 보냈던 짙으로 된 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며 앉아 있는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나는 기다리고 있는 나무들 품으로 걸었다.

18장

바다 옆 저 숲의 맨 꼭대기 높은 능선에, 버드나무 한 쌍이 서있다. 둘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 울퉁불퉁하고 가지가 하늘로 뻗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어린나무는 엄마 곁에서 자란다.

두 나무는 같이 자라지만 떨어져 서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가지들은 서로 만나서 나뭇잎들이 아치형을 만든다. 그들은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햇빛, 달빛, 그리고 별빛을 받는다.

때때로, 모래 색 새끼 곰이 어린나무를 찾아온다. 그는 거기 살고 있는 참새 등지에 코를 비빈다. 하지만 그는 주로 나뭇가지 사이에서 논다. 가지에 매달리고 흔들고 나뭇가지가 다시 튀어 오르게 친다.

그리고 때로, 그 곰은 숲에서 같이 뛰노는 갈색 곰과 함께 한다. 그는 햇볕이 비추는 숲을 달리고 항상 레슬링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는 무엇보다 나무에 오르기를 좋아한다.

능선에 바람이 불어올 때면, 두 버드나무는 함께 흔들린다. 허리에 내려온 머리칼처럼 잎이 무성한 가지들은 꿈결처럼 춤을 춘다. 춤을 추는 동안, 버드나무들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천천히 속삭이는 노래를 부른다.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는 노래, 심장이 고동치듯이.

멀린 시리즈 작가의 마법 같은 이야기!

로완나를 돌봐주는 엄격한 멜윈은 그들의 오두막집 주위를 둘러싼 숲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경고한다. 하지만 로완나는 숲에 끌린다. 특히 멀리 떨어진 언덕위에 서있는 높은 버드나무에게… 멜윈이 말한 것처럼 그 나무들은 정말 숲의 유령들일까? 그 나무들은 그녀가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과 그녀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높은 버드나무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로완나는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나무소녀를 읽는 독자들은 분명 기쁠 거예요. T.A. 배런의 책에는 커다란 지혜와 유머, 기억에 남을 만한 영웅이 있어요.”

-매들렌 령글, 뉴베리 메달 수상, 『시간의 주름』

“배런은 놀라운 이야기꾼이다. 그는 등장인물들이 지혜와 힘을 배우게 되는 마법 같은 장소들을 만들어 내는 신화와 우화의 창조자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감사의 말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나의 능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린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나씩은 갖고서 인생 전반에 걸쳐 시험하고 도전하고 모험한다.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능력을 더욱더 키워 외국인으로서는 상당한 실력의 영어구사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에 통역대학원에 도전했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재능은 한줌 재보다 못하고 통역번역이 적성이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으로 비틀거렸다. 이 번역논문은 정말 나의 무능과 게으름, 아집을 여실히 파헤쳐 줬다. 하지만 나는 도서관에 꽂혀 있던 수많은 책들 중 나무소녀를 만난 것에 감사하다. 안나는 정말 사랑스럽고 용감한 소녀다. 숲에는 가지 말라던 뿔원의 되풀이되는 경고들과 자신의 내면속의 두려움을 모두 떨치고 그녀는 높은 버드나무에 다다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나도 만나처럼 용기를 낼 것이다. 지금 나는 높은 버드나무에 다다랐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아마 능선 어디쯤, 혹은 이제야 숲과 해안의 경계 검은딸기나무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번역논문이 도화선이 되어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을 출발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곁에서 더 큰 인내와 수고, 격려로 도와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먼저 의지박약한 제가 완주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주신 박경란 교수님, 김재원 교수님, 김원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합니다. 대학원 시절 밥 사주는 것 뿐 아니라 함께 울고 웃어주었고 때론 멘토가 되어주던 인복언니, 윤진언니를 비롯한 10기, 함께 공부한 언니 오빠들, 정말 고맙고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도 자기에겐 최고라고 해주는, 오만 짜증과 히스테리를 다 받아준 남편 박종현, 논문 쓰는 동안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해준 뱃속의 시온,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